

13일 Market Index			
↓ 코스피	2417.08	↓ 코스닥	689.65
	(-65.49)		(-20.87)
↑ 금리 (연이자율)	2.939	↑ 환율 (원/달러)	1404.75
	(+0.039)		(+1.25)

시장 불안한데 계열사 파업까지 현대차그룹 '세계2위' 도약 제동

현대트랜시스, 노사 갈등 장기화
한때 파업으로 변속기 공급 차질
파업 확대시 '글로벌 톱3'도 위태
트럼프 美 사업 불확실성 증가
'메타플랜트' 전략 차질 불가피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이 내외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안으로는 계열 부품사의 임금 인상 요구에 따른 잇따라 파업으로 완성차 생산에 발목이 잡혔으며 밖에서는 글로벌 완성차 시장 위축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의 부품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와 현대위아, 현대제철 등은 현대차, 기아와 임금



현대차그룹 양재동 본사.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고 주장하며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대트랜시스의 경우 노조의 파업으로 변속기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SUV 코나를 생산하는 현대차 울산 1공장 1라인을 포함해 1공장 전체가 전면 가동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현대트랜시스는 지난 11일 파업 종료와 함께 회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경영체제 도입을 선언했지만 노사간 갈등은 지속되는 분위기다.

현대트랜시스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지만 특근과 잔업은 계속 거부하기로 했다. 12일에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정 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임금 인상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만약 현대제철과 현대위아 노조도 파업에 합류할 경우 현대차·기아의 생산 차질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그룹은 계열사 파업이 확대될 경우 글로벌 판매량 3위 자리도 안심할 수 없다. 지난해 글로벌 총 판매량은 730만 4000대를 기록했다. 1위 도요타 그룹은 1123만 3000대, 폭스바겐 그룹은 942만대를 판매하며 2위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차그룹에 이어 4위에는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가 639만 9000대를 판매하며 현대차그룹을 추격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역대 최고 실적을 견인한 미국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지 여부다.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완성차 판매에서 미국 시장의 비중은 지난해 판매량(730만 4000대) 중 23%를 차지할 정도다. 중국을 비롯해 신흥 시장에서의 판매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미국 시장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곳이다.

하지만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다. 미국에 10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해 대규모 전기차 공장인 '메타플랜트'를 조성했지만, 전기차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으로 당초 세웠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2위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지만 부품 계열사의 파업으로 발목이 잡힌 상태"라며 "글로벌 브랜드 위상은 물론 국가적인 손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 재집권과 관련해 "그동안 미국의 정책 추진 방식을 보면 복잡하게 정책을 설계해놓고 유예 조치를 해왔다"며 "현대차그룹은 트럼프 당선인 재집권을 염두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수능 시험장 확인하는 수험생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13일 서울 금천구 동일여자고등학교를 찾은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확인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손진영 기자 son@

"유증 철회... 주주들 혼란에 사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기자회견
이사회 의장직 빠르시일 내 '사퇴'
경영권 분쟁 연말 표대결서 판가름



직후 상반되는 성격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영풍·MBK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지분을 우위를 점하기 위해 회사가 돈을 빌리고는 주주에게 빚을 갚게 한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6일 고려아연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관련 법규와 정관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철회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사진)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주주들의 우려와 시장 혼란을 견뎌야 받아들이고 주주 보호와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판단에서다.

최 회장은 이어 "빠른 시일 내로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지난 10월 30일 발행주식의 약 20%에 해당하는 보통주 373만 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신규 발행하는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

당시 이를 위한 조달 금액은 2조 5000억원이며 이 중 2조 3000억원이 차입금 상황에 쓰인다고 공시했다. 유상증자가 성공했다면 최 회장 측은 우호 지분 3~4%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사주 공개매수를 단행한

최 회장은 "시장 반응과 사정 변경은 당초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할 당시 회사와 이사회가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초래된 시장 혼란과 주주분들의 우려에 대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반 투자자 중심의 다양하고 독립적인 주주 기반을 강화하고자 도모했던 일이었으나 간박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충분히 사전에 기존 주주님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4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

달러·코인 '트럼프 특수'... 韓 증시는 소외

코스피 2.6% 급락... 2410대 마감
시총 1위 삼성전자 '신저가' 경신
비트코인 사상 최초 9만달러 진입

코스피가 환율·금리 급등 압박에 2410선까지 무너지는 등 '트럼프 랠리'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반면, '트럼프 트레이드' 대표 수혜 자산으로 꼽히는 비트코인은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트럼프 특수를 누리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64% 급락하면서 연중 최저치인 2417.08에 마감했다. 코스피 시가총액도 지난 8월 '블랙 먼데이' 이후 최초로 2000조원이 붕괴됐다. <관련기사 4면>

코스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 됐던 6일부터 6.20% 떨어졌다. 미국 등 주요 글로벌 지수들은 트럼프 랠리를 펼치고 있지만 코스피는 2500선이 붕괴되고, 코스닥도 700선이 깨지는 등 폭락하는 모습이다. 코스피는 올해 상반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며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만큼 투자자들의 이탈 속도가 가속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국내 주식시장 하루 거래대금은 17조 7643억원으로 올해 1월 일평균 거래대금이었던 약 19조 3731억원보다 약 2조 원가량 못미쳤다. 미국 대선 전 날이었던 5일에도 관망세를 보이며 13조 683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더불어 코스피 대장주인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도 신저가를 경신하는 등

위기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극도로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3거래일 연속 신저가를 경신하면서 5만원선을 위협받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30일부터 11거래일 연속 삼성전자를 순매도하고 있다.

미래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은 "트럼프 집권 2기의 영향으로 국내 반도체주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최근 7거래일 중 6거래일을 하락했다"며 "이와 관계없이 초반 상승하던 SK하이닉스도 오름폭을 반납하면서 하락권으로 진입하는 등 반도체업종이 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4면에 계속>

/신하은 기자 godhe@

뉴스이벤트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한 총리, 북한군 우크라 참전에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의해 대응" /사진 뉴스스
▲ 민주, '명태군 대통령명칭 동승 의혹' 서울역 현장 점검

▲ 국민의힘, 오늘 '특별감찰관' 의총... 표결 없이 합의할 듯
▲ 국힘 계사판 한동훈 이름 '尹부부 비방글'... 경찰, 수사 착수



▲ 친명계 혁신회의, 이재명 무죄 탄원 제출... "103만명 참여" /사진 뉴스스
▲ 문다혜 '제주 별장서 미등록 숙박업' 혐의 모두 시인

‘트럼프 新 행정부’ 동향 논의… 산업·통상 등 협력방안 모색

산업부, 주요국 상무관 화상회의

모든나라에 20% ‘보편관세’ 우려
주재국별 기회요인 발굴에 총력
수출업체와 릴레이 간담회 열고
민관 대협력 TF 구성·대응키로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밤 정부 세종청사에서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 주요국 상무관 화상회의를 개최, 미국 신 행정부 출범 관련 주요국 동향, 현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제네바·영국·독일·멕시코·인도네시아 등 9개국 상무관들이 참석했다.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통상·산업정책이 발표되면 글로벌 경제와 안보에 상당한 변화가 전망되고, 이에 따라 우리 산업·통상 환경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회의에 참석한 상무관들은 향후 트럼프 정부로 넘어가는 과도기 동안 적극적으로 발로 뛰며 주재국 동향을 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회의실에서 배터리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속 모니터링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우리 기업에 미칠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주재국별 기회 요인 발굴에 총력을 집중할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는 대선을 거치며 집권 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모든 나라에 최대 20%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 관세’를 시행하고 중국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친환경차 보조금 폐지 등 기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 또는 정책 방향 전환도 예상된다. 특히, 관세 강화 정책은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직간접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이날 ‘2024년 미국 선거와 글로벌 경제 통상환경 변화 세미나’에서 “선거 결과 정권이 교체되며 기대했던 이익이 줄고, 다양한 관세조치로 통상환경이 악화되는 것은 불가피해보인다”며 “냉철하게 득실을 따져보고 한국과의 파트너십 가치를 적극 설명해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트럼프 정부 출범에 대비해 자동차, 철강 등 수출 주력 업계와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업종별 대응에도 나선다. 또 업계와 함께 ‘민관 대협력

TF’을 구성해 본격 가동하고 업계와 워킹 대응방 방침이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서울 자동차산업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각각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계와 잇따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종별 영향을 점검했다.

업계는 그간 우리 기업이 미국의 첨단 제조산업 분야에 지속 투자 중이고 현지 부품 공급망을 구축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를 언급하며, 앞으로 정부가 미국과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는데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2023년 기준 자동차와 배터리산업은 우리 전체 수출에서 16%를 차지한다.

안 장관은 “자동차와 배터리 업종이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미국 시장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참석자들이 대외환경 변화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민관이 워킹을 이뤄 대응해 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27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에 참석해 트럼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AP뉴시스

美 트럼프 행정부 정부효율부 수장에 일론 머스크 발탁

예상대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 수장으로 발탁됐다.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인을 위해 정치자금 모금단체인 ‘아메리카 팩’을 설립해 운영하는 등 대선 승리 ‘일등 공신’이었다.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주요 자리에도 머스크와 동행하며 그가 차기 행정부에서 실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예견됐다. 인도계 출신 기업가이자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비베 라마스와미도 머스크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됐다.

초대 국방부 장관에는 육군 소령 출신 피트 헤그세스 포크뉴스 진행자가 지명됐다.

국방부 장관에 피트 헤그세스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주요내각 ‘총성파’ 구성될 듯

또, 외교·안보 분야 최고위 참모인 국가안보보좌관으로는 일명 ‘그린베레’로 알려진 미 육군 특수전부대원 출신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이 발탁됐다. 외교·안보 분야는 물론 향후 주요 내각에도 트럼프의 최측근 이른바 ‘총성파’로 구성될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12일(현지시각) 본인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정부효율부를 이끌) 두 훌륭한 미국인은 정부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줄이고 낭비적인 지출을 줄이며 연방 기관을 구조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미국 구하기’(Save America) 운동의 필수적이며 잠재적으로 우리 시대의 ‘맨해튼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정부 효율화 작업을 늦어도 내후년 4월까지 완료해 탈(脫)관료주의적인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중심에 있는 정부효율부는 저명한 기업 수장들을 기용해 낭비성 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효율화한다는 목적으로 신설을 검토해 온 새 내각 기구다. 여기서 기업 수장으로 억만장자이자 세계 최고 갑부인 머스크가 주요 직책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승일 기자 won@

취업자 수 증가폭 5개월來 최소… 20·40대는 감소

통계청, 10월 고용동향

취업자 수 2884.7만명, 8.3만명 ↑
30대 6.7만명, 50대 1.2만명 증가

지난달 취업자수가 1년에 비해 늘어났으나, 증가 폭은 둔화하며 5개월 사이 최저로 주저앉았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4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4만7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8만3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올해 5월(8만 명) 이후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올해 6월 9만6000명 증가 이후, 7월

부터 9월까지의 매월 10만 명 넘게 증가했으나 10월 들어 다시 10만 선을 밑돌았다.

10월 취업자 수를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5만7000명, 고령층 일자리 가운데 65세 이상에서 30만 명, 70세 이상에서 12만9000명, 75세 이상에서 5만7000명 늘었다. 3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6만7000명, 1만2000명 증가했다.

그러나 20대와 40대는 각각 17만5000명, 7만2000명 감소했다. 청년층을 일컫는 15~29세 취업자도 전년보다 18만2000명 줄어들며 24개월 연속으로 뒷걸음질 했다. 고용률도 45.6%로 전

년보다 0.8%포인트(p) 떨어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기저효과 등으로 10월 취업자 증가폭은 9월에 비해 축소됐다”며 “인구 고령화와 생산연령 감소의 상황에서 고용률이 계속 증가해왔던 폭을 감안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가 3만3000명 줄어든 44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설업 취업자가 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며 9만3000명 줄었다. 농림어업 취업자도 6만7000명 줄며 역시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는 2016년 9월(-7만2000명)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도매 및 소매 분야에서는 14만8000명 줄었는데, 이는 2021년 7월(-18만6000명)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반면, 금융 및 보험업에서도 2만4000명 늘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2만8000명 늘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3.3%로 전년수준을 유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전년 대비 0.1%p 증가한 69.8%로 집계됐다. 이는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래 10월 기준 가장 높다.

/세종=김연희 기자 kys@

전자시계 반입 금지… 교과서·참고서 소지 ‘부정행위’

오늘 전국 1282곳서 ‘수능시험’
이후 면접·논술 본격 대입 레이스

14일 52만2670명이 응시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전국 1282곳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전자시계를 포함한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으며, 교과서나 참고서는 시험시간 중 소지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수능이 끝나면 면접·논술 등 본격적으로 대입 레이스가 시작되므로, 수험생들은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지원 대학별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준비령 시 문제지 상태 확인 및 성명 등 기재…본령 전 문제 풀면 ‘부정’ 수험생은 수능 당일 오전 8시10분까

지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된 시험장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신분증은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특히 ‘반입 금지 물품’을 절대로 소지하면 안 된다. 수능 시험장에서 부정행위 대다수가 반입 금지 물품 소지로 인해 발생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원을 끄더라도 휴대전화는 제출해야 하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소지한 경우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교과서나 문제집, 기출문제지는 시험 중 휴대가 불가능하다. 시험시간 중 적발 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시험에서는 매 교시 예비령·준비령·본령·종료령 순으로 울리는 타종에 주의를 기울이고 엄수해야 한다. 준비령이 울리면 문제지 상태 확인과 성명, 수

험번호, 필적 확인 문구 기재 등의 행동만 가능하다. 준비령과 본령 사이 문제를 풀다가 적발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특히 이 경우가 적지 않아 수험생들은 각 타종에 맞춰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 수능 끝나면, 대입 레이스 시작

수능이 끝나면 수험생들은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대략적인 정시지원 대학을 추려야 한다. 이어 수·정시 논술·면접 등 대학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가채점 결과를 분석할 때는 원점수 등 급커트만을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라며 “예상 표준점수와 예상 백분위를 확인해 ‘정시 지원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13일 서울 금천구 동일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논술, 면접 등의 대학별고사는 수능 다음 날부터 실시하므로,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수시전형에 지원한 수험생들은 수능 직후 빠르게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입시업체 등에 따르면, 수도권 주요 대학들의 논술·면접 등 대학별고사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진행된다.

/이현진 기자 lhj@

반도체 시장 양극화 심화... 삼성·SK, AI 중심 인프라 확장

미래 반도체 시장 주도권 확보 나서
삼성 천안 HBM 생산거점 건립 추진
SK 청주 M15X 공장 조기가동 방침

반도체 시장 수요 제품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반도체 설비 인프라 확장도 고대역 메모리(HBM) 등 인공지능(AI) 반도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13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이 AI 반도체에 전문화된 자본을 쏟아부으며 향후 미래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날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는 AI 열풍에 힘입어 내년 5nm(나노미터) 공정 가동률이 100%를 넘어설 것이라며 2025년 상반기 전망을 내놨다. TSMC는 올 4분기 양산형 전자기기의 비수기와 애플의 내년도 1분기 아이폰 '테이프아웃(반도체 설계 결과물을 파운드리에 전달하는 것)' 물량이 10%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TSMC 측은 AI 반도체 수요가 확대하며 공장 가동률에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에서도 AI 반도체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체를 중심으로 한 매출·이익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크리스토프 푸케 ASML CEO는 지난달 컨퍼런스콜에서 "AI가 없었다면 시장은 침울했을 것"이라며 "AI를 제외한 다른 모든 분야의 수요가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들 또한 마찬가지다. HBM 3E 8단의 엔비디아 납품이 지연된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사이클에서 일시 탈락하며 처참한 실적을 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HBM3E 8단을 사실상 독점공급하면서 3분기 분기 최대 실적을 냈다.

두 기업은 중장기적으로 AI 반도체가 시장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고 특히 HBM 관련 인프라의 대대적인 확충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12월 충청남도와 충남 천안에 대규모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거점을 2027년까지 건립

하기로 하고 MOU를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삼성디스플레이 28만㎡ 부지 내 건물을 임차해 다음 달부터 2027년 12월까지 반도체 패키징 공정 설비를 설치, HBM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AMD와의 협업 강화도 본격화 한다. 삼성전자는 조만

간 AMD 본사에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을 보내 차세대 GPU 적용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청주 M15X 공장 가동을 당초 계획 보다 앞당기기 위해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M15X 파견 인력 규모 구성을 위해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이다. M15X는 청주 M15 공장 옆에 세워지는 D램 생산라인이다. 내년 11월 준공이나 HBM 주도권 확보를 위해 투입 인력을 늘리면서 가동시기 또한 앞당기는 쪽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M15X 가동시 SK하이닉스의 HBM 생산능력은 20~30% 확대 될 예정이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빅테크 투자 경쟁이 2025년에도 계속돼 SK하이닉스 등 HBM주는 글로벌 AI 모멘텀과 함께 주도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산업부,尹정부 성과·계획 발표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 트럼프 2기, 새로운 기회로”

주요 성과에 원전 생태계 복원 등 꼽아
 “수출 온기 확산되도록 면밀히 살필 것”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돈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대 최대 수출, 원전 생태계 복원 등을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성과로 꼽았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 출범 시부터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고금리·고물가 누적 등 엄중한 대내외 상황이 이어져 왔다”며 “산업부는 장관 이하 전 직원이 현장과 소통하며 민관이 원팀이 돼 협력한 결과, 역대 최대 수출,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먼저, 수출과 외국인 직접투자는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수출은 지난해 일시적인 정체기를 맞았으나, 10월부터 반등을 시작해 13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면서, 올해 들어 세계 수출 상위 10개국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이미 올해 9월 작년 전체 실적을 넘어섰고, 자동차도 매월 최대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선박도 3~4년치 수주물량이 확보된 가운데, LNG 운반선, 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으로 수출이 2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이 확실시되는 상황

이다.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지난해 327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3분기까지 252억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원전 생태계 복원도 성과로 꼽힌다. 우선, 탈원전 때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했고, 원전 10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도 개시했다. 지난 7월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통해 대형원전 3기, SMR(소형모듈원자로) 1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반영했고, 국회보고 등 남은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대로 부지선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원전 일감은 생태계 정상화 이후 올해까지 9조원 정도가 발주됐고, 2027년까지 총 11조원 규모 추가 발주될 예정이다.

박 차관은 다만 “아직 우리 경제 곳곳에 산업부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수출의 온기가 지역, 중소기업, 민생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단부터 처방까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출범과 관련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에서 전개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차별하고 치밀하게 대응하겠다”며 “위기 요인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최대한 살려 신 행정부와 적극 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결제에서 라이프까지
됩니다

다 되는 페이 KB Pay

준법감시인심약필 제240402-01381-ADP (2024.4.2~2025.4.1)

KB국민카드

비트코인, 사상 첫 9만弗 벽 넘었다 ETF자금 유입에 힘 실는 상승 랠리

8일 동안 35% 급등 연이은 최고가
현물 ETF, 8억1754만弗 자금 유입
“단기조정 후 연말까지 10만弗 기대”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첫 9만달러를 돌파하면서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가상자산 낙관론’에 힘입어 폭발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 단기조정 후 연말 10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13일 가상자산 시장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8만72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오전 6시 비트코인은 9만45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사상 첫 9만달러 진입에 성공했다.

전날 8만9800달러까지 상승했던 비트코인은 차익 매물 실현으로 8만5000달러까지 하락했지만 오전 4시부터 매수세가 활발하게 유입됐다.

비트코인은 미국 대선날인 지난 5일 7만달러를 돌파했고 지난 11일 8만달러 돌파, 이를 뒤인 이날 9만달러를 돌파하면서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8일 동안 무려 35%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은 트럼프 당선에 따른 기대감이 여전하다. ‘트럼프 트레이드’에 힘입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단기조정을 거친 후 상승세를 이어나가 연내 10만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기관투자자 및 연기금의 본격적인 자금 유입이 이뤄지기 전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동력이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대선 승리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12일 서울 서초구 빙셀라온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펀드(ETF) 시장은 이날 5거래일 연속 순유입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은 8억1754만달러(1조1505억원) 상당의 자금이 들어왔다. 대선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신규자금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종합 누적 유입액은 277억 2000만달러로 전일 대비 269억 달러 늘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까지 승인하며 향후 기관투자자의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가상화폐에 친화적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인도계 출신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를 ‘정부효율부’ 수장에 내정했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가상화폐 산업을 지지했던 인물

들이다.

‘정부효율부’는 연방 정부 전체의 재정 및 성과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과감한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가상화폐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현지 베팅플랫폼 ‘칼시’ 이용자 60%는 ‘내년 1월 이전 비트코인이 10만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에 베팅했으며 ‘이달 중 10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베팅한 이용자도 45%에 달했다.

제프 캔들릭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애널리스트는 “연말까지 비트코인이 손쉽게 10만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말이나 내년 1월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 12만5000달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국내 증시 투자자 이탈 현상 뚜렷”

>> 1면 ‘트럼프 특수...’서 계속

비트코인 강세에 국내 증시 불안감 ↑
금융당국, 변동성 확대 안정 방안 마련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도 연초 59조4949억원에서 이달 11일 기준 51조1952억원으로 줄었다. 투자자에탁금의 감소는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 열기가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한국예탁결제원 기준 투자자들의 미국주식 보관 금액은 연초 670억 달러(94조원)에서 11월 기준 1035억달러(145조원)로 급증했다. 지난 7일 최초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는데, 2022년 말 442억달러(62조원)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국내 증시에서는 투자자들이 이탈하고 있지만, 미국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증가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친비트코인

파’인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13일 가상자산 시장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8만72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오전 6시 비트코인은 9만45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사상 첫 9만달러 진입에 성공했다. 비트코인은 미국 대선날인 지난 5일 7만달러를 돌파했고 지난 11일 8만달러, 이를 뒤인 이날 9만달러를 돌파하면서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8일 동안 무려 35% 상승률을 기록했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시장도 이날 5거래일 연속 순유입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은 8억1754만달러(1조1505억원) 상당의 자금이 들어왔다. 대선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신규자금이다.

이날 미국 증시는 ‘트럼프 랠리’ 피로감에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상승추세 지속 기대감은 여전히 보인다.

반면 국내 증시는 달러 강세와 미 국채 금리 상승 등으로 하방 압력이 더해지고 있다. 이날도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06.6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이는 주간거래 기준으로 전일보다 3.1원(0.2%) 상승한 것으로, 2일 연속 달러당 1400원선을 웃돌았다. 환율이 달러당 1400원을 넘긴 것은 지난 2022년 11월 7일 이후 2년 만이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트레이드’는 숨고르기가 나타났으나 달러 강세와 국채 금리 상승이 지속되며 국내 증시에 대한 부담이 여전하다”며 “수급 부진이 이어질 수 있어 대형주 및 지수 약세가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시장 변동성 확대에 경각심을 갖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으로 시장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추세로, 시장 불안 확산 시 시장 안정을 위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며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킹달러 영향에 유가상승 겹쳐 수입물가 6개월 만에 ‘최대치’

한은 ‘10월 수출입물가·무역지수’
10월 수입물가지수 137.61로 상승

지난달 우리나라 수입물가가 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74달러를 넘어서고 원·달러 환율이 1360원까지 오르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영향이다. 수입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11월 이후 물가가 소폭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24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137.61로 한달 전과 비교해 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3.8%) 이후 6개월 만에 최대치다.

수입물가가 오른 이유는 국제유가가 상승한 영향이 컸다. 한국으로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월평균 가격은 지난달 배럴당 74.94달러로 전월(73.52달러) 대비 1.9% 올랐다. 원·달러 환율도 상승했다. 지난달 원·달러 평균환율은 1361원으로 한달 전(1334.82)과 비교해 2% 올랐다.

고(高)유가·고환율 여파로 원재료는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4.1% 상승했다. 원유(3.9%)와 유연탄(6.4%)을 중심으로 오른 영향이다. 중간재는 석

탄및석유제품(4.1%), 1차금속제품(2.9%) 등이 오르며 1.6% 상승했다.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전월 대비 0.5%, 1.1% 올랐다.

특히환율상승은수입물가와생산자물가를 밀어올려 물가상승을 부채질한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입의존도가 높은만큼 환율이 상승하면 원유, 곡물 등 수입 원자재 가격도 덩달아 오르기 때문이다. 유가상승과 환율상승이 맞물리면서 소비자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수출물가지수는 122.92로 전월대비 1.7%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며 석탄및석유제품(5.5%), 화학제품(2.1%) 등 공산품을 중심으로 수출물가를 끌어올렸다. 달러기준 수출금액지수는 0.1% 상승했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92.99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3.9% 상승했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지난 8월 1.3% 떨어진 뒤 2개월 연속 올랐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1단위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지수화한 수치다. 순상품교역지수가 개선됐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해외에 물건을 팔아서 사올 수 있는 물건의 양이 늘었다는 의미다.

/나유리 기자 yul115@

타임폴리오, 미나스닥100액티브 ‘고공행진’

비트코인 가격 급등에 수익률 올라
미국 대선일 이후 11일까지 8.5% ↑

미국의 가상화폐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중인 가운데, 비트코인 관련주를 담고 있는 ETF의 수익률도 지수대비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타임폴리오의 자사의 ‘TIMEFOLIO 미국나스닥100액티브 ETF’가 미국 대선일 이후 11일까지 8.5% 상승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상품의 연초 이후로는 수익률 62.5%를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나스닥100지수가 1.6% 상승한 것을 고려할 때 그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셈이다. TIMEFOLIO 미국나스닥100액티브 ETF는 마이크로스트레티지(MSTR)와 코인베이스 글로벌(COIN)

을 각각 9.6%, 4.4% 비중으로 편입하고 있다. 국내 상장 ETF 중 비트코인 관련주를 가장 높은 비중으로 담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비트코인 관련주인 마이크로스트레티지와 코인베이스가 급등세를 타면서 TIMEFOLIO 미국나스닥100액티브 ETF의 수익률은 더 높아졌다.

미국 내 블록체인 관련 ETF인 FDI G(암호화산업&디지털결제), DAPP(디지털 전환) 등도 코인베이스, 마이크로스트레티지 등을 높은 비중으로 편입 중이지만, 국내 연금계좌에서는 투자가 불가능하다.

TIMEFOLIO 미국나스닥100액티브 ETF는 연금계좌에서도 투자가 가능하다. 트럼프 2.0 시대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12.9% 비중으로 편입하고 있다. /허영준 기자 zelkova@

“주주 목소리 반영 위한 이사회 개편”

>> 1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서 계속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 매수가 종료된 직후 10월 24일에는 상한가를 기록해 이후 상황을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주가가 폭등하고 두 차례 공개매수 이후 많이 줄어든 유통 물량으로 인해 시장 불안정성이 극도로 심화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이른 시일 내에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이사회의 독립성 강

화, 소액주주 보호와 참여를 위한 방안을 추진해 주주와 시장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기업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추진한 최대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이르면 연말로 예상되는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 대결로 판가름날 것으로 관측된다.

/차현정 기자 hyeon@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퇴직연금의 강자 탄탄한 신한은행!

“안정적인
퇴직연금은 어디?”

“탄탄한
신한은행!”



***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
은행업권 1위**

-2023년 말 기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기준

퇴직연금
고객센터

퇴직연금 제도 상담
1577-4114

자산관리 상담
1544-3682

개인형 IRP 고객 경품 이벤트
신한은행 IRP로 '모아! More 이득'
1만원 상당의 경품 혜택이 있는 IRP 이벤트 시행중



*이벤트 기간: 2024.10.16~2024.12.13 *자세한 사항은 신한 SOL Bank에서 확인하세요

신한은행 퇴직연금 IRP를
자금 확인하세요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해당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수익에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액공제의 기준과 면세액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인형 IRP의 수수료는 후취 연 0.21%~연 0.45%/DC의 수수료는 후취 연 0.4%(가입자 부담금 기준)입니다. (상세내용 홈페이지 참고)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 고객센터(1577-4114,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주말 및 공휴일 휴무)로 문의하시거나, 신한은행 홈페이지(www.shinhan.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경품 지급일까지 이벤트 조건이 유지된 계좌에 한하여 경품을 지급합니다. ※ 경품 발송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동에 동의한 고객에 한하여 이벤트가 적용됩니다. ※ 모바일 상품권은 당첨자 발표일에 신한은행에 등록된 핸드폰 번호로 개별 MMS가 발송됩니다. ※ 연락처가 부정확하여 본인 확인, 경품 배송 및 제세공과금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상품권은 타인에게 발송 불가하며, 유효기간은 1개월로 유효기간 경과 후 재발송 불가합니다. ※ 모바일 금액상품권 제공 건에 대하여는 2016. 7. 30 부터 시행중인 은행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보고」의무에 따라 보고됩니다. ※ 퇴직연금 특별이익은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 2항에 따라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되며, 초과시 경품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경품은 사정상 동일 금액의 다른 상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24-15057-1호 (2024. 10. 25 ~ 2025. 10. 24)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4-04243호 (2024. 10. 25 ~ 2025. 10. 24)

尹, 연내 인적쇄신 마무리 전망... ‘정치인 총리’ 필요 목소리

외교일정·예산정국 이후 단행할 듯 장수 국무위원 등 개각 폭 커질수도 총리 교체 시, 민주당 등의 필요 인맥 있는 주호영·추경호 등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중앙아시아 순방 때 선물로 받은 튀르키예니스탄 국견 알라바이 해피(왼쪽)와 조이를 산책시키고 있다. /대통령실

임기 후반기에 돌입한 윤석열 대통령이 인적쇄신을 연내 마무리할 전망이다. 인적쇄신의 범위는 내각과 대통령실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면전환용’ 인사를 하지는 않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장수 장관들을 교체해 하반기 국정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 인준이 비교적 수월한 ‘정치인 출신 총리’도 언급되고 있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현 정부에서 장수 장관들에 대한 개각이나 대통령실 인사 일부 개편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임기 반환점을 맞는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벌써부터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이 들어가 있다”면서 “시기는 좀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일단 윤 대통령은 14일부터 5박8일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참석을 위해 남미로 떠난다.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정부 측의 대응도 모색해야 한다. 2025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도 앞두고 있다.

이에 물밑으로 인적쇄신 준비를 한 후, 예산정국 이후 내달 중순 이후에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대통령실

의 일부 인사 교체도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지난 11일 취재진에게 인적쇄신 시기에 대해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도 있어야 되고, 해외 순방 일정 등이 지금 잡혀 있다”면서 “당분간은 외교의 시간이라고 봐달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예산안이 통과돼야 민생이 또 잘 돌아가게 된다”면서 “그런 만큼 예산 통과 시점까지는 좀 더 기다려 달라. 쇄신은 서두르겠지만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면전환용’ 인사를 지양하는 편이다. 이에 임기반환점을 둔 현재 한 번도 교체되지 않은 국무위원이 2명(한덕수 국무총리·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2년 넘게 재임 중이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개각 폭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여권에서도 김건희 여사 의혹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인적 쇄신을 요구한 바 있기에, 이번 개각을 통해 ‘장수 국무위원’이 교체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한 총리가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박정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한 방송에서 “대통령이 쇄신 의지가 아주 강해 야당 문을 뚫는 도전을 할 것 같다”며 국회 인준 동의가 필요한 총리 교체를 단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총리를 교체하려면 야당과도 인맥을 쌓아온 정치인 출신이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인준이 필수적인 총리를 교체하려면, 170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총리 후보군은 주호영 국회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다.

우선 주호영 부의장의 경우 당의 중진으로서 야당과 원만한 관계를 맺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시절 특임장관·정무특보 등을 맡으며 청와대와 국회 간 가교 역할을 한 바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경제부총리를 지낸 바 있어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원내대표로서 야당 지도부와 접점이 있다는 이유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원희룡 전 장관도 윤석열 정부 장관을 지냈고, 윤 대통령과 교감이 많아서 언급되는 분위기다.

지방자치단체장 발탁설도 나온다. 특히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상황이라, 이와 맞물려 흥준표 대구시장이나 이철우 경북지사가 거론된다. 흥준표 시장은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며 여당의 단일대오를 강조해서, 이철우 지사는 원만한 도정 운영으로 인해 언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野,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출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는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탄핵연대)’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탄핵연대는 탄핵 의결 정족수인 200명의 의원들 뜻을 모으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탄핵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식을 열었다. 탄핵연대에 민주당 27명·조국혁신당 9명·진보당 3명·기본소득당 1명·사회민주당 1명 등 총 4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탄핵연대의 대표는 박수현 민주당 의원과 황은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맡았다. /뉴스시

“檢 예산 삭감 부당” vs “집회 과잉진압 의혹”

(興)

(野)

예특위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興 “野, 사법제도 무력화 측면서 삭감”
野 “지난 주말 집회서 경찰 과잉진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예산심사가 열린 가운데, 여당 예결위원은 야당 주도의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 삭감을 질타했고 야당 의원은 주말 집회에서 있었던 경찰의 과잉 진압 의혹을 추궁했다.

◆ “국회도 특활비·특경비 대규모 사용”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이 일하고 있는 국회도 대규모 특활비·특경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검찰과 감사원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은 부당하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들 비용이 어디에 쓰였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검찰과 감사원이 요구한 특활비·특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강승규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법사위에서 특활비와 특경비를 삭감하면서 정청래 위원장 등이 4개 검찰 지청에 대한 특경비 사용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했고 4개 지청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관련한 내용도 있느냐”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그런 수사가 많이 진행된 지청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이 재차 이 대표와 연관된 것이냐고 묻자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야당의) 검사 탄핵 요구 연장선에서 보면 그런 의심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김민기 국회 사무처장에게도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특활비와 특경비 총 규모에 대해서 물었다. 김 처장

은 특활비가 9억8000만원, 특경비가 183억원 평균적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국회는 특활비를 2019년도에 84% 줄여서 9억8000만원”이라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국회도 이렇게 많은 특활비와 특경비를 썼다”며 “그런데 야당이 사법 제도 무력화 측면에서 법무부 검찰 특활비와 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감사원도 전액 삭감했다”며 “국회는 얼마나 일을 잘하고 신뢰를 받아서 특활비를 받아서 쓰냐”라고 지적했다.

◆ 집회 과잉 진압 의혹 추궁·집회 예고에 후방탄 질타

문규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주말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과잉 진압했다며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문 의원은 “지난 주말 집회에서 경찰이 과잉진압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에 따라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보통 경찰에서 허가한 집회 공간이 참가 인원 대비 좁았고, 실제 참가 인원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 보통 경찰은 추후 법적 문제를 따지더라도 시민과 국민 보호를 위해 더 넓은 집회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보통인데 불법만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 퇴진 운동을 막기 위한 선제적 포석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조 청장은 문 의원의 사과 요구에 대해 “청장으로서 도심 한가운데 통행 마비 사태와 여러 사람이 부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해 책임자로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반면,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이번주와 다음주에도 열기로한 서울 도심 집회와 대입 논술 시험이 겹치는 것을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與野, 예금자보호법 등 민생법안 6개 합의

이견 없이 공감대... 오늘 본회의 상정 대부업법 등 70여건 법안도 심사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4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6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부업법 등 민생법안 70여건을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의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참석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 달 28일 출범한 여야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 ▲건축법을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위기청년지원법 등을 꺼

내들었다. 이 6개 법안들은 여야간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뤄 14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제시한 반도체특별법·인공지능(AI)법·정부조직법과 민주당이 제안한 아이돌봄지원법·서민금융지원법·농업재해 대책법에 대해서는 여야간 일부 이견이 존재해 양당 정책위에서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해 수용 가능한 일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회동 이후 취재진과 만나 (여야는) 대표적으로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 건축법 등 민생을 위한 법안들은 지금이라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양당 정책위의장이랑 서로 교환하고 확인한 수용 가능한 법안이나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수는 대략 70여건이다. 이 법안들을 이번 정기회 때 통과시키고

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민의힘과 추가로 협상할 의제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지원법, 서민금융지원법, 농업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좀 포 수용할 수 있는 부분 더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겠다고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기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정부조직법은 민주당에서 좀 더 요구하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를 충족시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양당이 수용 가능한 법안,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가 다시 좀 더 검토하면서 합의 통과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더 늘릴 수 있는지 상의할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이런 법안들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대한민국의 에너지로 채우다

SK이노베이션이 SK E&S와의
합병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성원해 주신 모든 분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모든 곳이
우리의 에너지로 채워질 때까지

SK이노베이션이 SK E&S와 하나 되어
100조 규모의 아태지역 최대 민간 에너지 기업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SK 에너지

SK 지오센트릭

SK 온

SK 엔무브

SK 인천석유화학

SK 아이이테크놀로지

SK 어스온

SK 엔텀

삼성화재, 車 보험도 '초격차' 실현 특약으로 경쟁률 높여 손해율 타개

1~8월 車보험 누적 손해율 81%
상반기 DB손보에 손익 1위 내줘
하이브리드 배터리 신가보상부터
고령자 비상제동차량 특약 출시

삼성화재가 자동차보험 경쟁력 강화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손해율 상승과 차보험손익 감소 추세에 대응해 자동차보험 특약을 선보이면서 초격차 실현을 가속하겠다는 포석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다양한 자동차보험 특약을 출시하고 있다. '업계 최초' 타이틀을 획득한 특약으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삼성화재는 지난 12일 업계 최초로 '실버(고령자) 비상제동장치장착차량 할인 특약'을 선보였다. 해당 특약은 고령 운전자(만 65세 이상) 가운데 비상제동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보험료를 평균 2.7% 할인한다.

지난달에는 업계 최초 '하이브리드 차량 배터리 신가보상 특약'을 신설했다. 업계에서 전기차 배터리 신가보상 특약은 운영 중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의 배터리 신가보상 특약은 삼성화재가 최초로 출시했다.

해당 특약은 하이브리드 차량의 구동용 배터리가 파손돼 새 배터리로 교체시 새 부분품 가격과 감가상각비용 후 새 부분품 가격의 차액을 보상한다. 기존엔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체 보



삼성화재 사옥 전경.

/삼성화재

에서 보상받지 못하고 고객은 감가상각분을 부담했으나 특약 가입 시 감가상각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난8월에도 업계 최초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보장을 강화하는 특약 2종(대인배상I 지원금,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렌트비 지원)을 신설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 바 있다.

삼성화재가 자동차보험 강화 전략에 나선 이유는 업계 1위 수성이 꼽힌다. 손해율 상승 및 차보험손익 감소의 전화위복을 위해 자동차보험 상품 경쟁력을 앞세워 궁극적으로 올해 목표 전략인 초격차 실현의 가속 패달을 밟겠다는 전략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악화를 거듭하고 있다. 대형 손해보험사 4곳의 지난 1~8월 누적 손해율은 81.1%로 전년 동기 대비 2.9%포인트(p) 악화했다. 삼성화재의 누적 손해율은 80.9%, 지난 달 손해율은 86.5%로 통상 손익분기점

인 80%를 넘어섰다.

또한 앞서 삼성화재는 올해 상반기 차보험손익에서 DB손해보험에 1위 자리를 내준 바 있다. 삼성화재의 올해 상반기 차보험손익은 전년 동기(2020억원) 대비 26.1% 감소한 1493억원으로 DB손해보험(1620억원)에 뒤진 업계 2위를 기록했다. 2분기만 봐도 차보험손익은 470억원으로 950억원이던 전년 대비 50.9% 감소해 반토막났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업계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차보험 실적이 하락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전체 손익 측면에서는 심각한 이슈까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초격차 실현에 나서면서 전체적인 손익 규모 자체는 작년에 비해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초격차 실현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강남 신통 1호 '대치미도아파트' 임대 늘리고 요양시설 기부채납

초고령화 시대 복지수요 해소
저류시설 설치도 받아들여

강남신속통합기획 1호 단지인 '대치미도아파트'가 임대주택 수를 늘리고, 노인요양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단계가 나가지 않으면 신통 자체를 취소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에 당초 주민들이 주장했던 청년복지시설 대신 노인요양시설로 양보한데 이어 난색을 표했던 저류시설 설치까지 모두 받아들였다.

13일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대치미도는 최고 50층에 3800세대로 재건축된다. 이번 재공람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요구한 보완사항을 반영했다.

대치미도 1, 2차는 지난 1983년 강남구대치동 511번지에 21개동, 2436가구로 지어졌다.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붙어있고, 양재천이 바로 앞에 있는 입지다.

총 3800세대 가운데 공공임대가 623세대다. 당초 605세대에서 18세대가 늘었다. 기존에는 전평형이 전용 84㎡ 이상이었지만 재건축으로 중소형 평형이 생기게 됐다.

전용면적 별로는 ▲59㎡ 641세대(공공 226세대 포함) ▲74㎡ 362세대(공공 197세대 포함) ▲84㎡ 977세대(공공 200세대 포함) ▲115㎡ 336세대 ▲127㎡ 1008세대 ▲160㎡ 308세대 ▲190㎡ 168세대 등이다.

일반분양가는 3.3㎡당 약 7943만원으로 추정했다.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분양가에서 5%를 할인해 산정했다. 59㎡와 84㎡의 조합원 분양가가 각각 19억6800만원, 26억3100만원이다. 가장 대형 평형인 190㎡가 50억8100만원이다.

추정비례율이 101.1%로 기존 84㎡ 조합원이 같은 평형으로 이동하면 추가로 내야할 부담금은 1억5000만원 안팎이다.

기부채납하는 사회복지시설은 키즈카페 및 키움센터와 노인요양시설이다. 각각 1050㎡, 5000㎡ 규모다. 주민들은 청년복지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서울시가 노인요양시설을 고집했다.

공고에 따르면 "초고령화 시대 급증하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한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로 기부채납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 신통 1호인 여의도시범아파트 역시 노인복지시설인 '데이케어센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기부채납 시설을 놓고 서울시와 조합 간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나서 "데이케어센터가 없으면 신통기획도 없다"며 압박한 바 있다. 서울시는 단계별 기한마다 다음 사업단계로 추진하지 못하면 기존 신속통합기획 절차를 취소하는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키로 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생보사, 보험금청구권 신탁 선점경쟁 돌입

삼성생명, 여성CEO와 1호 계약체결
미래에셋, 업계 첫 신탁업 경영 인가
교보생명, 관련팀 꾸려 조만간 진출

신탁 시장 선두를 향한 생명보험사의 경쟁이 시작됐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되면서 생보사들이 발빠르게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졌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 일정조건을 갖춘 일반 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 보험 계약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이전까진 사망보험금과 같은 보험금의 청구권은 신탁이 허용되지 않았다. 신탁제도는 주로 퇴직연금이나 주식·채권과 같은 금전재산을 중심으로 한정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무처와 협의를 통해 보험금청구권 신탁 요건을 마련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시행으

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도입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타 업권 대비 생보업계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다른 재산신탁과 달리 장기상품인 보험의 특성이 주요한데 안정적·장기적 자산 운용 및 관리는 생보사의 전문 분야다. 보험 계약 관계자와 보험금 청구·지급 정보도 생보사가 실시간 제어할 수 있다.

생보사가 가운데 삼성생명은 지속적으로 일반고객 대상 신탁업 영위해 왔다. 지난 2007년 신탁업 개시 이후 일반 개인 고객을 상대로 투자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부유층 고객의 투자·자산관리 상담지원도 해오고 있다.

또한 삼성생명은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도입된 12일 신탁 상품을 출시해 여성CEO와 1호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상품은 본인의 사망보험금 20억원에 대해 자녀가 35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자녀가 35세, 40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삼성생명은 "보험금청구권신탁은 회사의 안정성과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컨설팅 역량이 중요하다"며 "삼성생명의 안정성은 충분히 인정받고 있으며, 상속·증여, 투자, 세무 등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WM팀은

고객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같은 날 업계 최초로 보험금청구권 상품을 출시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종합재산신탁이 가능한 생보사 5곳(미래에셋생명·삼성생명·한화생명·흥국생명·교보생명) 중 한 곳이다. 그동안 집중했던 퇴직연금 신탁과 함께 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에 공을 들인다는 방침이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미래에셋생명은 보험업계 최초로 신탁업 경영 인가를 받은 보험사"라며 "사망보험금 지급 이후에도 수익자 재정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교보생명도 신탁 시장을 눈독 들이고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 6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재산신탁업 인가를 받고 종합자산관리회사 전환을 준비해왔다. 최근엔 보험금청구권 신탁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종신보험 상품을 출시하면서 신탁 시장 진출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신탁 시장 진출 준비를 해왔고 관련 팀도 꾸려졌다"며 "조만간 해당 상품을 출시하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케이뱅크, 사상 최대 누적 당기순익 달성

3분기 순익 370억, 누적 1224억
파킹·입출금통장 인기로 고객수 ↑

케이뱅크가 올해 3분기 1224억원의 누적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사상 최대 실적이다.

케이뱅크는 3분기 370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해 누적 당기순이익이 122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누적기준으로는 1년전과 비교해 220.2% 증가한 수준이다.

케이뱅크가 사상 최대실적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고객수가 늘며 여수신 잔액이 증가한 영향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3분기말 케이뱅크 고객수가 1205만명을 기록했다"며 "파킹통장과 입출금통장이 인기를 끌며 고객이 몰렸다"고 말했다.

케이뱅크의 3분기 수신잔액은 22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27% 늘었다.

지난 9월 케이뱅크는 파킹통장 '플러스스박스'의 기존한도 10억원을 폐지하고 고액예치(5000만원 초과) 잔액에 대해 연 3%의 금리를 적용했다. 고액예치 고객이 25% 늘며 수신금액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여신잔액은 16조2000억원으로 같은기간 26.4% 증가했다.

케이뱅크의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대출잔액은 각각 4700억원, 2000억원 늘었다.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잔액 증가분의 70%가 대출갚아타기를



케이뱅크 사옥.

/케이뱅크

통해 유입됐다.

여수신을 통해 얻은 이자이익은 1074억원이다.

케이뱅크의 3분기 비이자이익은 120억원이다. 케이뱅크는 비이자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올 3분기 국내채권과 미국국채투자서비스를 출시하고, 가상자산·채권·금·공모주 등 여러 투자등을 한데모는 '투자탭'을 신설했다.

케이뱅크의 연체율은 0.88%로 세분기 연속 하락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은 14.42%로 이익성장, 안전자산 비중이 증가해 전분기보다 0.56% 올랐다. 순이자마진(NIM)은 2.07%다.

케이뱅크는 이날 건전성 제고를 바탕으로 상생금융 실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삼성, 모바일·가전제품 경쟁력 강화... “당일 배송·설치”

낮 12시 이전 구매시 ‘오늘보장’ TV·세탁기·냉장고 등 수요 전망 고객 서비스 통해 판매 반등 모색



삼성전자로지텍 전문 설치팀과 모델이 삼성전자 화성 물류센터TC에서 ‘오늘보장’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국내 최초로 모바일 기기부터 가전까지 당일배송을 시작하며 생활가전 판매량 반등을 꾀한다. 최근 삼성전자는 중저가 TV를 중심으로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에 밀리면서 프리미엄 생활가전을 내세우며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이번 생활가전 매출의 선방에도 경쟁사인 LG 전자와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고객 서비스를 통한 시장 선점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14일부터 가전에서 모바일까지 구매 제품을 당일 배송·설치하는 ‘오늘보장’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늘보장 서비스는 삼성닷컴에서 낮 12시 이전에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TV, 냉장고, 세탁기 등 사전 공사가 필요 없는 가전제품은 삼성전자로지텍을 통해 10만원에 당일 배송·설치할 수 있다. 제외 품목은 정수기, 전기레인지, 인덕션, 에어컨, 식기세척기, 오븐 등이다.

스마트폰, 웨어러블 등 설치가 필요

없는 50만원 이하 모바일 제품도 별도 배송 업체를 통해 배송비 5000원에 당일 배송된다. 다만 스마트폰 갤럭시 S/Z 시리즈, PC, 프린터, 갤럭시 링 등은 ‘오늘보장’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오늘보장 서비스는 우선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하며 향후 광

역시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고장이나 파손으로 음식물 변질이 우려되는 냉장고 ▲시청이 필요한 TV ▲신속한 통화가 필요한 스마트폰 등의 서비스 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갑자기 고장이 나는 냉장고, TV 등에 대해 당일 배송 서비스 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7월 일부 섬 지역에 갤럭시 Z 폴드6·Z 플립6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드론 배송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운영한 바 있으며 소비자가 직접 제품 수령과 설치 시간을 지정하는 ‘시간 맞춤 설치 서비스’ 등도 도입했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의 가전 실적은 선방했지만 경쟁사인 LG전자와 벌어진 격차를 역전시키기 위한 전략 가운데 하나로 풀이된다.

3분기 삼성전자 VD(영상디스플레이)·생활가전 사업부 매출은 전 분기

대비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개선됐다. 3분기 영업이익은 5300억원으로 전 분기와 비교하면 8.2%, 1년 전과 비교해 39.5% 상승했다. VD는 네오(Neo) QLED 등 전략 제품 판매에 주력했고 서비스 사업 매출 확대가 주효했다. 생활가전은 비스포크 AI 신제품 중심으로 프리미엄 제품 판매를 이끌었다.

하지만 결국 구독서비스를 내세운 LG전자가 가전 시장에서 앞지르며 삼성 전자와의 격차를 1.5배 가량 벌렸다.

이밖에도 로봇청소기와 중저가 TV를 중심으로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가전 시장에서 돌파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QLED, 대형 TV 등 전략 제품 수요는 지속적으로 성장중”이라면서도 “엔트리급 중심 수요가 늘어나면서 중저가 TV 시장 비중이 확대되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SK실트론, 美 웨이퍼 공장 투자자금 확보

美 에너지부 7700억 대출지원 승인 내년 200mm SiC 웨이퍼 양산 예정

SK실트론 미국 법인 SK실트론CSS가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미국 실리콘 카바이드(SiC) 웨이퍼 공장 투자와 관련해 7700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을 받는다.

SK실트론CSS는 지난 5일 미국 에너지부와 ATVM 대출 프로그램(Advanced Technology Vehicles Manufacturing Loan Program)의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의 대출 프로그램 사무소(LPO)는 지난 2월 SK실트론CSS에 5억4400만달러의 대출을 조건부 승인

했다. 이번 본계약은 SK실트론이 특정 기술과 법률, 환경, 재정 조건 등 세부 계약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성사됐다. 대출 지원금은 원금 4억8150만달러, 이자 6250만달러 등이다.

이번 대출 지원은 미국 정부의 자국내 전기차 제조 기반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SK실트론CSS는 SK실트론의 미국 자회사로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에 필요한 SiC(탄화규소) 웨이퍼를 생산한다. SK실트론은 미국 미시간주 베이시티(Bay City)와 구미2공장에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한미 듀얼(Dual) 생산 체계를 운영 중이다.

SK실트론CSS는 차세대 전력반도체

의 핵심 소재인 SiC 웨이퍼를 연구개발·제조·공급하는 기업이다. SiC 웨이퍼는 전기차용 전력 반도체의 핵심 소재로 주목 받고 있다. SiC 웨이퍼를 사용해 반도체를 만들면 기존 실리콘 웨이퍼 대비 약 10배의 고전압과 약 3배의 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이에 충전 시간이 더 빠르고 주행 거리가 최대 10% 더 길어질 수 있다.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발전용 전력반도체의 핵심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경북 구미와 미국 ‘듀얼’ 생산 체계를 가동해 차세대 제품인 200mm SiC 웨이퍼를 2025년부터 본격 양산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

HMM, 3분기 영업이익 1.5조... 1827% 폭증 (전년동기대비)

초대형선 등 수익성 위주 영업 주효

HMM이 올해 3분기 신규항로 개설과 초대형선 투입 등 수익성 위주의 영업 강화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HMM은 연결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1조461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27.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조5520억원, 당기순이익은 1조73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0%, 1722.0% 상승했다.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은 8조5453억원, 영업이익 2조5127억원, 당기순이익 2조8843억원이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홍해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지난해 3분기 평균 986포인트였던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올해 3분기 평균 3082포인트

트로 상승하며 매출 및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또 신규서비스(아시아~멕시코) 개설, 1만3000TEU(1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 분량)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투입, 고채산 화물 증가 등 수익성 위주의 영업을 강화한 것도 실적 상승에 도움을 줬다.

4분기는 전통적인 비수기 진입으로 전 반적 상황 약세가 예상된다. 다만 미국 동안 항만 파업 영향 및 스케줄 지연에 따른 공급 불안정은 지속될 전망이다.

HMM은 내년 2월 ‘프리미어 얼라이언스+MSC’ 신규 협력으로 항로·지역별 수급 변화에 맞춰 최적의 운송서비스를 구축하고, 2030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사업 다각화 및 신규 수익 창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

LG엔솔, ‘파트너스 데이’ 개최 김동명 사장 “파트너사 아낌없이 지원”

파트너사 경쟁력 강화 집중



LG에너지솔루션 CEO 김동명 사장이 2024 파트너스데이 행사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이 파트너사와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상호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 및 미래 준비를 위한 ‘2024 파트너스 데이’를 1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광주 곤지암 리조트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EMPOWER EVERY POSSIBILITY”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협력사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파트너사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올 한 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잇따른 수주에 성공하며 대체할 수 없는 고객가치를 증명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무궁무진한 사업의 기회를 현

실로 만들기 위해 글로벌 기준을 뛰어넘는 높은 기술력과, 품질, 가격 경쟁력이 필요하며, LG에너지솔루션은 이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찬란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차현정 기자 hyeon@

SK케미칼 ‘갤럭시 어워즈’ 대상 지속가능 경영 성과 입증

SK케미칼이 ESG 평가 기관으로부터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성과를 꾸준히 인정받고 있다.

SK케미칼은 ‘2024 갤럭시 어워즈’에서 ‘2023 지속가능 경영보고서’가 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갤럭시 어워즈’는 미국 커뮤니케이션 전문 기관인 머콤(MerComm) 사가 주관하는 글로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경연 대회다.

이번 경연대회에서 SK케미칼은 연례 보고서-온라인(Online Annual Report) 지속가능경영보고서부문에 대상에 선정됐다.

지난 7월 온라인으로 발간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 영역별로 한해 동안의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 중장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아이오닉 9 내장 티저 이미지. /현대차

현대차, ‘아이오닉9’ 내장 티저 이미지 공개

현대자동차가 브랜드 최초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이오닉9의 디자인을 엿볼 수 있는 실내 공간을 공개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9의 내장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이오닉9은 현대차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라인업을 확장하는 모델로 이번에 공개된 내장 티저 이미지는 에어로스타틱 실루엣 안에 펼쳐진 실내 공간의 모습이 담겨 있다.

아이오닉 9의 실내는 여유로운 공간을 바탕으로 타원 모양의 다양한 디자인 요소들을 적용해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아늑하고 유연한 라운지를 연상케 한다.

특히 아이오닉 9은 동급 최고 수준의 휠베이스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3월까지 확장된 플랫폼 플로우를 통해 넓은 실내 공간을 갖추고 있다.

/양성운 기자

스마트 에너지 절감, 친환경이 이끄는 '그린 가전' 시대 온다

2050 탄소중립 향한 '가전 진화'

삼성, 포장재 재활용 소재 적용
LG, 전 세계에서 폐전자제품 회수
SK매직, 리사이클링 센터 건립
코웨이, 제품 '에코 패키징' 추진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가전제품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그린 가전'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지속 가능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3일 시장조사기관마켓앤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그린 가전 시장 규모는 내년까지 연평균 9.8% 성장해 43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각국 정부는 가전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속속 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에코디자인 지침'을 통해 제품 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2050년 탄소 중립 목표에 발맞춰 가전 산업에 엄격한 에너지 절약 기준을 도입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등급제'를 통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를 장려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린 가전 구매 시 최대 3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전 세계에 에너지 효율이 높고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그린 가전'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은 모습을 담은 이미지.

중이다.

국내 가전업계 선두 주자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미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절감 시스템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싱스 에너지' 서비스는 AI가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분석해 최적의 에너지 사용량을 제안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비스포크 에어컨의 'AI 절약 모드'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 30%까지 절약할 수 있다"면서 "고객들이 실질적인 전기 요금 절감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G전자의 'ThinQ 에너지' 서비스 역시 AI가 사용 데이터를 학습해 전기 사용량을 제어하는 등 전력 소모를 최적화한다. 더 나아가 에어컨에 레이더 센서를 달아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외출 절전' 모드로 자동 전환하는 기능도 구현했다.

이들 기업은 제품 소재에서도 친환경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출시한 '비스포크 냉장고'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했으며, 올해 그 비율을 30%까지 높였다. LG전자 역시 '티운' 가전 라인업을 통해 재생 플라스

틱 사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을 50%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친환경 움직임은 가전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프린터 전문 기업 애플은 '환경 비전 2050'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과 지하자원 고갈 제로를 목표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개발하거나 플라스틱 포장재를 줄이는 등 여러 방면에서 친환경 전략을 추진 중이다. 코웨이는 '그린 홈 가전'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50%까지 늘리고, 제품 포장재 100% 재활용을 목표로 하는 '에코 패키징'을 추진 중이다.

그린 가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환경을 고려해 가전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여전히 일반 제품보다 가격이 높은 점은 과제로 남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린 가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초기 비용이 높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절감과 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전제품의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친환경 설계가 중요하다"며 "제품 생산부터 폐기까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SKT, '양자암호원칩' 국정원 암호모듈 검증

SK텔레콤은 케이씨에스(KCS)와 공동 개발 및 상용화한 '양자암호원칩(QKEV7)'이 국가정보원의 암호모듈 검증(KCMVP)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자암호원칩'은 양자난수생성기 칩과 암호통신기능 칩 등 2개 칩이 하나로 합쳐진 보안칩이다. 양자난수생성기가 적용된 보안칩이 국정원의 보안 검증을 통과한 것은 국내 최

초다. KCMVP는 국가-공공기관의 중요 정보보호에 사용되는 암호 체계 안정성과 구현 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현재 국가-공공기관을 위한 정보보호 시스템에 탑재되는 암호모듈은 반드시 KCMVP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번 양자암호원칩은 양자 기반 암호키 생성기술과 함께 물리적 복제방지 기술(PUF) 등이 적용됐으며 초경량, 저전력이 장점이다. 이번 인증은 국정원 KCMVP 보안수준 2등급으로, 국정원에서 암호모듈을 대상으로 부여한 인증 가운데 현재까지 가장 높은 등급이다.

SKT와 케이씨에스는 이번 KCMVP 인증을 시작으로 국방·공공 산업에 본격적 진출해 시장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난 6월 출시한 차세대 양자암호칩 'Q-HSM'으로 차세대 국가 차원의 보안 관련 실증사업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BYD, 인식전환·네트워크 확충으로 韓 시장 공략

국내 승용차 시장 진출 공식화 2025년 초 목표로 출범 준비중

"딜러사 선정도 안됐으며, 아직 서비스센터도 없습니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 BYD가 국내 승용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지만 성공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BYD코리아는 국내 시장에 승용차 브랜드 출시를 위한 검토를 완료하고 승용차 브랜드의 국내 출시를 공식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BYD코리아는 지난 수 개월간 승용차 브랜드에 대한 국내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다각도로 진행해 왔다. 현재는 초기 승용차 판매 및 서비스를 위한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인력 채용, 차량 인증, 마케팅 계획, 직원 교육 등 2025년 초를 목표로 BYD 브랜드의 국내 공식 출범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BYD코리아가 국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서비스센터 구축을 위해 부지선정을

비롯한 제반 과정을 거치면 수개월이 걸리지만 현재 이와 관련된 사전 준비가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차 판매의 가장 핵심인 딜러사 선정도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차는 제조사 수입사-딜러사-지점-딜러 등 4단계의 유통구조를 갖추고 있다. 수입차는 국산차와 달리 해외에서 수입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재고 및 판매관리가 중요하다.

BYD의 한국 진출과 관련해 지난 12일 회사 관계자는 "현재 승용차에 대한

딜러사와 서비스센터에 대해 아무것도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또 BYD코리아는 국내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BYD코리아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단 시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업계의 반응이다.

/양성운 기자 ysw@

AI·신제품으로 성장 가속... SK네트웍스, 3분기 영업이익 286억

AI 중심 모델로 글로벌 협력 확대 지속적 비용 효율화 경쟁력 강화

AI 중심의 사업 지주회사의 위상을 구축하고 있는 SK네트웍스가 전년 대비 한층 향상된 수익력을 보인 3분기 성적표를 받았다. SK네트웍스는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연결 기준 3분기 매출 2조 428억원, 영업이익 286억원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3.9%, 영업이익은 74.9% 증가한 수치다.

특히 SK매직이 신제품 출시 및 비용 효율화를 바탕으로 실적 향상을 주도했다. 올 상반기 출시한 초소형 직수정수기에 고객 호응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며, 3분기 선보인 2024년형 '코어

360° 공기청정기'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 또한 마케팅 비용 절감을 통한 운영 개선 성과도 거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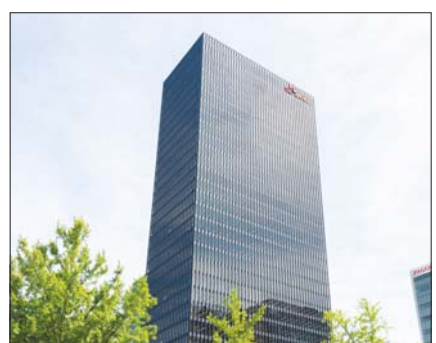
워커힐의 경우 '캠크니@포레스트파크', '파크 콘서트', '피자힐 가을 페스티벌' 등 계절에 맞는 서비스와 숙박 패키지로 방문객을 이끌며 객실 점유율을 높였다.

이와 함께 SK네트웍스는 3분기 AI 중심 사업지주사로 진화를 위한 포트폴리오 조정도 활발히 진행했다.

SK렌터카 지분 양도를 마무리하며 차입금을 상환해 현금성 자산이 확대되고, 지난 2023년 말 323%였던 부채비율은 174%까지 대폭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사업별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 9월 분사한 SK스피드메이트는 분사 후 독일 자동차 데이터 기업인 DAT(Deutsche Automobil Treuhand)의 AI 차량 견적 프로그램 등 데이터 솔루션을 도입하며 AI를 활용한 사업 확장 기반을 마련했다. 트레이딩사업부의 경우 오는 12월 분사할 예정이다.

4분기 들어 SK네트웍스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글로벌 협력 및 시장과의 소통 강화를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말레이시아 유력 그룹인 선웨이와 MOU를 맺고 ▲ AI 중심 사업 협력 추진 ▲ SK매직과 선웨이의 합작법인 설립 ▲ SK네트웍스와 선웨이 간 지분 교환 등 다양한 협업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2026년까지 자기가



SK네트웍스 삼일빌딩 전경. /SK네트웍스

본이익률(ROE)을 현재보다 1.1%p 높은 3.5%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연간 주당 250원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공시했다.

엔코아는 '2024 엔코아 데이'를 개최해 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는 데이터 관리 및 활용 방안과 생성형 AI가 적용된 자동화 기능을 추가한 데이터 솔루션을 소개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KT클라우드-MS

기술 중심 클라우드 혁신

KT클라우드가 MS와 협력해 멀티클라우드 사업 역량을 강화한다.

KT 클라우드는 12일 서울 역삼 아모리스에서 클라우드 및 데이터센터 파트너사의 동반성장을 위한 소통의 장 '2024 KT 클라우드 파트너스 데이(Partner's Day)'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최치웅 대표를 비롯한 KT 클라우드 주요 임원과 메가존클라우드, 콘텐츠브릿지, 디딤365, 진인프라 등 클라우드 분야 MSP 파트너사와 아리스타, 퍼시픽자산운용, 클루젠 등 DC(데이터센터) 분야 운운사, 설계사 등 약 60개 파트너사 대표 및 관계자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했다.

최 대표는 이날 자체 클라우드 경쟁력 제고 뿐만 아니라 MS 협력을 통한 멀티클라우드 사업 역량을 갖추고, 전략적 데이터센터 공급 확대와 함께 DC 기술 차별화 계획을 소개하며 기술 경쟁력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톱티어 기술 전문 회사'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이러한 목표는 파트너사와 함께 해야만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며 파트너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구남영 기자

No.1을 넘어 Only.1으로
한양사이버대학원

한양대학교의



- ✓ 국내 최초 온라인 박사과정
- ✓ 글로벌 TOP100 6위
- ✓ 국내 최대 사이버대학원



클래스로

| 한양사이버대학원

대한민국 최초 온라인 박사과정 개원,
일반대학원 온라인 석·박사과정 / 경영전문대학원

2024 세계혁신대학 랭킹 TOP100 6위
(Culture/Values 부문, 국내 대학 중 최고 순위)

2024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최대 재적학생 수(1,240명)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

gs.hycu.ac.kr



※ 이 광고는 한양사이버대학교의 전용서체
“한양사랑체”를 사용해 디자인되었습니다.
무료다운로드 - 한양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



한양사이버대학원 25학년도 1학기 석·박사과정 모집

2024년 11월 01일(금) ~ 12월 12일(목)

대학원	학과	
일반대학원	기계IT융합공학	법·행정
	도시건축공학	교육공학
	아동가족	디자인기획
	상담및임상심리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마케팅, FA&T, IT경영, 광고미디어 트랙)	

맞춤형 석사과정

학점/논문과정
선택 가능

입학지원

대학원 입학문의 | 02.2290.0700 / 카카오톡 : 한양사이버대학교 채널



리츠株, 유상증자 등에 ‘부진’... “이달 말부터 반등 가능성”

대형 리츠 기업, 신규자산 편입 위해 지난 9월부터 유상증자 대거 진행
美 국채금리 상승 등도 부진 영향
시세차익 보다 배당수익 측면 접근



ChatGPT에 의해 생성된 리츠투자자와 부동산 개발 이미지.

금리인하에도 리츠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대형 리츠의 연이은 유상증자에 금리와 환율 시장의 불안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리츠 TOP 10지수는 지난 두 달간 약 14% 하락했다.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연초부터 지난 8월 말까지 12%가량 상승한 것과는 반대되는 흐름이다.

리츠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국내의 부동산에 투자한 후 임대료와 매각 차익 등으로 이익을 창출해 배당하는 금융투자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자본 조달 비용이 줄

어들어 리츠의 투자 매력도가 상승하지만 최근에는 대형 리츠들이 신규 자산 편입을 위해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삼성FN리츠는 성남 삼성화재 판교 사옥 매입을 위해 지난 9월 약 66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 구주주 청약은 완료했으며 롯데리츠와 신한알파리

츠도 각각 1472억 원과 185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이밖에 한화리츠는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사옥 편입을 위해 4000억원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계획 중이며, 디앤디플랫폼리츠도 명동N빌딩 매입 자금 조달을 위해 유상증자를 추진 중이다.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른 것도 리츠 주가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 미 연준의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이후 3.70%까지 떨어졌던 미국 국채 10년 물 금리는 지난달 4%대를 돌파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8월까지 금리 인하 기대와 시장금리 하락으로 리츠의 주가는 유상향 트렌드였으나, 9월부터 리츠 유상증자 집중, 금리 인하 속도 조절된 부상 등으로 부진한 흐름으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리츠의 부진에도 업계에선 리츠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주가가 낮다 보니 시가배당률 측면에서 장점이 있어 투자자입장에서 시세차익 보다 배당 수익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어서다.

자산운용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에서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진행하다 보니 단기間に 가격이 조정받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라며 “리츠는 펀더멘탈(기초체력)이 여전히 견고한 섹터이고, 특히 현재 시가 배당률이 높아 투자 환경이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도 이미 시장에 대부분 반영됐고 국내에서는 오히려 채권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상증자 일정이 마무리되는 이달 이후부터 연말까지 서서히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금융주, 실적둔화 신호에도... “투자매력도 ‘여전’”

KRX 300 금융지수, 최고치비 6.14% ↓
내년 은행권 수익성 악화 가능성 높아
주주환원 기대감... 투자 유지 기조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국내 은행권에서 실적 둔화 신호가 감지되고 있지만, 금융투자업계는 여전히 주요 국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투자 비중을 유지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300 금융’ 지수는 이날 1095.2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10월 25일(1166.89)보다 약 6.14% 하락한 수치다.

해당 지수가 채택한 구성 종목 중 가장 많은 비중(20.52%)을 차지하고 있는 KB금융의 경우는 같은 기간 기준으로 10만1000원에서 약 9.90% 하락한 9만

1000원에 장을 마쳤다. 금융업계는 내년 금융 전망을 고려했을 때, 은행권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 12일 한국금융연구원 등이 개최한 ‘2025년 경제 및 금융전망 세미나’에서는 내년 국내 은행의 순이자마진이 올

해 1.59%에서 4bp 하락한 1.55%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한, 실물 경제 성장 둔화로 대손비용이 증가해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올해보다 약 1조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럼에도 증권가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투자 전망을 ‘유지’하는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 뚜렷한 주도주가 없고 은행들이 주주환원 정책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초 이후 11일까지 은행주 주가는 평균 44.6% 상승해, 코스피 하락률 4.7%를 크게 초과하며 하락장에서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러한 상승세는 각 은행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내놓고 주주환원 확대를 약속한 점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4대 은행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는 내년 위험가중자산(RWA) 증가율을 4~6% 이내에서 관리하고, 자사주 소각에 적극 나설 계획을 밝혔다.

우도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KB금융은 은행지주사 중 가장 높은 주주환원 여력을 갖춰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며

“비이자이익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아 양호한 실적이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증권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까지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은행주를 추천하고 있다. 김용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정부 인선 기조가 확정될 때까지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며, “실적 개선과 경기 방어주 성격을 겸비한 방산·조선업과 더불어 금리 인하 국면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은행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에도 불구하고 특정 주도주가 명확히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은행주의 매력이크게 약화될 가능성은 낮다”며, “시가총액 비중이 큰 업종 내에서 주도주가 새로 나오지 않는다면, 모멘텀 소강상태에서도 금융주가 코스피를 초과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한투운용, 커버드콜 ETF 매수액 2500억

6개월간 유입된 개인 순매수액
기초자산·안정적 분배금 성과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 3종’으로 유입된 개인투자자 자금이 2500억원을 돌파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중가 기준으로 연초 이후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커버드콜 상품별로 유입된 개인투자자 자금은 ▲ACE 미국빅테크7+데일리타켓커버드콜(합성) ETF(1210억원) ▲ACE 미국500데일리타켓커버드콜(합성) ETF(781억원) ▲ACE 미국반도체데일리타켓커버드콜(합성) ETF(634억원) 순으로 많다. 약 6개월간 유입된 3종 합산 개인투자자 순매수액이 2625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 3종 ETF는 지난 4월 동시 상장한 상품으로 데일리옵션(ODTE)을 활용하는 월배당형 상품이라는 특징이 있다.

데일리옵션(ODTE)을 활용한 커버드콜 ETF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국내 자산운용사 중 최초로 선보인 것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측은 ‘성장성 높은 기초자산’과 ‘안정적인 분배금 지급’을 꾸준한 자금 유입의 배경으로 꼽았다. 해당 ETF들은 미국 대형 500개와 미국 반도체 및 빅테크 대표 기업을 각각 기초자산으로 하는 동시에 나스닥100 ETF(QQQ ETF)와 S&P500 ETF(SPY ETF) 콜옵션을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 상장 이후 수익률은 10.01~23.88%(6개월 수익률은 0.43~14.47%)에 달하며, 연환산 분배율은 13.45~14.88%에 달한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 본부장은 “ACE 커버드콜 ETF 3종은 ODTE 외가액(OTM) 1% 옵션을 활용해 커버드콜 상품의 단점이었던 상당 제한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동시에 분배금 또한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금감원, 내달 CB 발행·유통 공시 등 강화

(전환사채)

‘증권 발행·공시 규정’ 개정안 의결

다음달부터 전환사채(CB) 발행·유통 공시가 강화되고 전환가액 조정도 제한하는 등 관련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19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규정 개정안에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발행·유통 공시 강화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 명확화 등의 내용 등이 담겼다. 해당 내용은 관계 기관과 기업 등 준비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환사채 등을 발행할 때 콜옵션 행사자를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로만 공시하고 있어 투자자가 콜옵션 행사자에 대한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선 회사가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하거나,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에는 구체적인 행사자, 대가 수수여부(콜옵션 제3자 양도시), 지급금액 등을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만기 전에 취득한 전환사채를 최대주주에게 재매각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새로운 규정에서는 회사가 만기 전 전환사채 등 취득시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취득·처리계획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해 시장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전환가액 조정(리픽싱)도 합리화해 기존 주주 이익 침해를 방지하고, 증자나 주식매당 등으로 전환권의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희석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만 전환가액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허정윤 기자

키움증권

세전 연 4.4% 특판

하나은행 채권 판매

키움증권은 만기까지 2개월 남은 세전 연 4.4%의 특판 하나은행 채권을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키움 특판 ‘하나은행 46-04 채권’은 신용등급 AAA의 금융채로, 매수수익률 세전 연 4.4%, 세후수익률 연 3.78%다. 만기는 내년 1월 14일이다.

최근 금융사들은 채권을 판매할 때 투자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민평금리(민간 채권평가사가 평가한 해당 채권 금리의 평균)도 함께 제공한다. 민간평가사 3곳(나이스신용평가, 한국자산평가, 에프앤자산평가)의 평가 정보를 평균한 해당 채권의 민평금리는 연 3.37%지만, 키움증권은 투자자에게 유리한 세전 연 4.4%의 수익률로 특별 판매한다.

해당 채권은 비상장 채권으로, KRX 채권시장 장내에서 거래가 불가하다. 만기까지 보유해야 한다. /원관희 기자

“일·가정 양립, 中企 성장에 필수... 인구 비상사태 극복해야”

‘중소 일·가정 양립 위원회’ 출범

중기중앙회, 저출생 위기극복 동참 여경협·이노비즈협 등 19곳 참여 업계, 육아휴직 확대지원 등 건의

범 중소기업계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대안을 함께 모색키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에는 중기중앙회 외에도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스닥협회,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여성건설인협회,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 대한여성변리사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세무사회, 대한여성치과의사회 등 19개 협회 및 단체가 참여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앞줄 왼쪽 2번째부터) 오영주 중기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문수 고용부 장관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이들 단체는 출범한 위원회를 통해 우리나라 저출생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에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위원회에 참여하는 중소기업협·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저출생 문

제 해결방안 중 하나인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81%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크다”며 “중소기업계가 이번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함께 노력해 우수사례를 더 많이 만들고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정책들을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정책에 잘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에게 일·가정 양립은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자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뉴노멀(New Normal)”이라며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당면 과제를 꼽자면 단연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과 문화의 조성’이고, 이를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 간 성별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게

하는 ‘직장에서의 양성평등’과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 키울 시간을 마련해주는 ‘유연한 근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성별 차별이 없고 유연한 근무환경이 갖춰진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과 함께 열린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사업주 지원 확대 ▲영세사업장에 대한 과감한 재정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홍보 강화 등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중소기업 현장의 건의사항을 전달하며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오영주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일·가정 양립이 우리 사회 전반에 일상적인 문화로 정착되기 위해선 정부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중소기업계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해선 정부지원을 우대하고 중소기업에 맞게 제도가 도입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소상공인 뚝뚝뚝 ‘상생’... 사업미래 연다

소진공 ‘소상공인 협동조합’ 지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협력과 상생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소상공인 협동조합들이 있다.

여러 소상공인들이 모여 시너지를 창출해 매출 증대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소상공인의 미래를 보여주면서다.

1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충북 옥천군의 알렉산드리아협동조합은 농가 간 협업을 통해 성장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 조합에선 기계, 품종, 재배, 가공, 유통 등 각자 다른 분야에 몸담았던 조합원들이 힘을 모아 와인 포도로 유명한 최고급 품종 ‘머스켓 오브 알렉산드리아’를 유기농으로 재배하고 있다.

특히 조합이 효자 상품인 스파우트 파우치 착즙 주스를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은 소진공의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이 큰 힘이 됐다.

2016년 롤 포장기, 스탠딩 포장기, 스파우트 포장기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저온창고, 급속주스냉각설비, 진공압축시스템 등 설비 구축 덕분에 단일 품목 판매에서 벗어나 과채 주스 등 다양한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조합은 포도 농사를 중심으로 귀농인 양성을 위한 ‘포도밭일꾼’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낼 수 있는 여건 마련에 힘쓰고 있다.

급성장한 렌탈 시장에서 브랜드로 사업에 날개를 단 프랜차이즈조합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대구광역시에서 프린터와 복합기 등



제품 연구개발을 위해 도쿄식품박람회(이하)에 참석한 알렉산드리아협동조합 관계자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실시 경쟁력 높이고, 안정적 수익모델 창출

옥천 알렉산드리아조합, 농가 협업 스파우트 파우치 착즙주스 등 생산

대구 프렌즈조합, 렌탈시장 브랜드 사무기기 임대... 3년새 100배 성장

의 사무기기 임대업을 운영하는 이 조합은 조합원들이 힘을 합쳐 확실한 브랜드에 집중한 결과 전국 유일의 사무기기 협동조합으로 거듭났다.

2019년부터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에 참여해 브랜드 개발과 네트워크 구축, 마케팅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아 기업 이미지(CI)와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완성했다.

조합은 사무기기 전문업체로 이미지를 확실히 굳힌 후에는 사무기기 전반에 대한 투자까지 사업을 확대했다.

대형 레이저젯 복합기를 대량 구매해 신규 거래처를 확대하고 캐노과 전문대리점 협약 체결, 공동 구매·판매 개척 등을 통해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며 제품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제2 항공전투비행단 등의 관공서를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며 조합 설립 3년 만에 100배 이상 성장하는 쾌거를 이뤘다.

네트무협동조합은 사진 관련 일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모인 사회적기업이다.

2015년 설립 이후 문화 콘텐츠 기획과 방송 중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에게 장수 사진을 촬영해 주거나 지역 청년 등 주민을 대상으로 포토샵, 조명 활용 교육과 같은 재능 기부도 하고 있다.

이곳 역시 소진공의 지원사업을 통해 장비를 확충하고 인쇄물과 홍보영상 제작, 옥외광고 등 다양한 도움을 받았다.

이같이 체계적인 지원은 제품 사진 촬영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 기획, 현장 방송 중계 등 다방면의 사업 분야를 확장하며 성장하는데 ‘단비’와 같은 역할을 했다.

한편 소진공에 따르면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은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5인 이상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가 대상이다. 사업은 기반 마련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네트워크(누리집, 어플리케이션 등), 프랜차이즈화, 공동장비 구매 등을 중점 지원한다.

소진공은 2020년 이후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을 5회 지원받은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졸업제를 추진하고 있다.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협력해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각자의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자생력을 기르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3분기 누적 벤처투자 8.6조... 11% 증가

중기부, 글로벌 투자규모 19% 하락 ICT서비스 47%, 전기·기계 24% ↑

국내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벤처투자 시장이 성장하며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4년 3분기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에 따르면 벤처투자는 올해 들어 3분기까지 8조5808억 원으로 전년 동기의 7조7118억 원에 비해 1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글로벌 벤처투자 규모는 2051억 달러로 전년 동기의 2521억 달러에 비해 18.6% 하락했다. 지난해 3분기까지 385억4000만 달러였던 유럽도 올해 들어선 340억1000만 달러로

11.7% 줄었다. 다만 미국은 1235억 달러에서 1314억 달러로 6.4% 늘었다.

한국의 경우 업종별로는 ICT서비스(46.8%), 전기·기계·장비(24.4%) 등이 전년 동기보다 크게 늘어 전체 성장을 이끌었다.

이런 가운데 올해 3분기까지 펀드결성 규모는 총 8조2024억 원으로 전년 동기(8조5528억 원) 대비 4.1% 감소했다.

오영주 장관은 “우리나라 벤처투자는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달 발표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의 이행을 통해 성장세를 더욱 가속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올해의 중진공인에 박혜영 등 3명 선정

중진공, 경영·사업·지역혁신 3개 분야 총 112건 혁신 사례 발굴, 현장서 발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6회 올해의 중진공인(人) 선발 경진대회’를 개최해 기관과 사업운영 전반에 우수 혁신을 선도한 3인의 중진공인을 선정했다.

13일 중진공에 따르면 2019년부터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열어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해 전사적으로 공유하고, 업무성과가 높은 부서를 포상하고 있다.

중진공은 경진대회에 앞서 ▲경영혁신 ▲사업혁신 ▲지역혁신 등 3개 분야로 나눠 총 112건의 혁신사례를 발굴했다. 이 가운데 최우수과제로 선정된 9건의 사례는 중진공인 최종 후보로 선발

해 경진대회 당일 현장에서 발표했다.

경진대회에선 전 직원의 실시간 온라인 투표, 내·외부 40인으로 구성된 ‘KO-SME 현장평가단’ 평가와 일반시민과 중소기업인 등이 포함된 ‘국민참여단’의 모바일 평가 결과를 합산해 각 분야별 고득점자 1인씩, 총 3인을 올해의 중진공인으로 선정했다.

경영혁신 분야에는 저출산 시대에 맞춘 복지정책을 선도적으로 실천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 혁신 추진!’(박혜영 인재경영실 대리), 사업혁신 분야에는 정책자금 지원목적 달성 및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한 ‘정책자금 사전검증 시스템 구축으로 정책자금 투명성UP, 부정사용 OUT!’(고은영 대출관리실 대리)이 뽑혔다. /김승호 기자

농촌·농업 근본적 개혁방안 마련 스마트팜·인력, 구조적 변화 예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농업과 농촌의 구조개혁 방안을 올해 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변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전반부의 농식품 분야 성과로는 'K-푸드+'(K-푸드 및 전후방산업)의 수출 확대, 농촌 체류형 쉼터 등 농지규제완화, 개 식용 종식 등을 꼽았다.

송 장관은 이날 세종 농식품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 2년반 국정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향후 펼칠 정책 가운데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봤다. 이에 "스마트, 인력, 쌀 산업, 농지, 기후변화 대책 등 5가지를 중심으로 농업·농촌 구조개혁 방안을 연내에 완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사례를 언급한 송 장관은 "농업인의 날(11월11일)에 한쪽에선 산지 쌀값 하락에 대한 시위로 쌀을 쌓아놓고 있었는데, 한쪽에선 가래떡데이를 기념해 떡을 나눠주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광경을 보는데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다"며 "한 시대에 한 공간에 있는데 다른 상황에 놓여있는 것을 보고 이게 농업·농촌의 현실인가 싶었다"고 했다. 이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점검해본 뒤 나아가야 할 길을 생각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재배적지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안에 없을 수도 있고 기존과는 달리 평면이 아닌 위, 아래 등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스마트팜뿐만 아니라 노지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세종청사에서 현 정부의 '농식품 관련 전반부 성과 및 후반기 계획'을 밝히기 위해 언론설명회장에 들어서고 있다. /농식품부

농식품부, 5대 개혁과제 추진 K-푸드 수출확대·농촌쉼터 확산 기후변화 대응·쌀 산업 재편 개혁 '체류형쉼터' 도입, 농촌 유입 확대 쌀값 정상화 위한 재배면적 축소

도 기후변화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비축역량 제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배추나 무는 저장할 수 있는데 상추나 깻잎은 비축을 하지 못한다. 이런 채소들을 6개월 정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면 기후변화에 대한 컨트롤을 상당 부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송 장관은 밝혔다.

쌀값 정상화에 대해선 "재배면적을 감축할 예정인데 어느 정도로 감축해야 하는지는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쌀은 현재 품종과 품질을 따지지 않고 양으로 가격을 매기는데, 가격이

아닌 질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1월 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현장반응이 좋았던 정책 중 하나로 '농촌 체류형 쉼터'를 들었다.

이는 도시민이 자신 소유의 농지에 지을 수 있는 임시 숙소로, 규제가 따랐던 농막과 달리 숙식이 가능하다. 연면적 33㎡(10평) 내 가설 건축물 형태로 전용 허가절차 없이 지을 수 있다.

내년에는 이 "체류형쉼터를 단지화해, 임대 형식으로 (제도를 확산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는 농지법의 추가 개정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또 'K푸드+'가 이제 브랜드화 됐으며 굉장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송 장관은 "사람들이 K-푸드에 붙는 '+'의 의미를 묻는다. 이에 대해 대답해주면 고개를 끄덕인다"고 전했다. '+'란 K-푸드에 농기자재·동물용의약품 등 전후방산업을 더한 개념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부산에 혁신신약연구원 설립

지역경제·바이오 혁신 앞당긴다

산업부, 유법민 정책관 개원식 참석
내년까지 대규모 연구인력 채용

항체의약품 연구개발 거점이 부산에 구축됐다.

바이오 분야 고급 연구인력 채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법민 투자정책관(사진)이 13일 부산에서 개최된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사의 혁신신약연구원 개원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암, 난치성 질환 등 항체의약품 제조·연구개발 기업으로, 충북 오송에 항체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DMO) 시설을 운영 중인데, 이번에 총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부산에 혁신신약연구원을 개원했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췌장암, 난소암 치료제 등 항체신약 16종의 신

약 후보물질을 개발 중이며, 이번 혁신신약연구원 개원을 통해 국내에서 연구개발·임상·상업화·생산에 이르는 항체신약 전주기적 지원이 가능한 혁신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내년까지 석·박사급 위주로 총 116명의 연구인력을 채용할 계획으로, 바이오의약품 기술역량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와 같은 글로벌 혁신기업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안정적 통상기반 마련, 기술인재 양성, 규제 개혁과 함께 외국인 기업에 친화적인 정주여건 조성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권익위

장애인학대 처벌 강화 지자체 감독의무화 권고

앞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학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학대유형과 정도에 따라 세분화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시설 내 학대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학대행위가 발생하더라도 학대의 유형이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1차 위반에 대해 개선명령만 가능하다.

권익위는 장애인 학대 행위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내 학대행위 발생 시 학대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노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장애인 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대상기관을 확대하도록 했다.

/김대환기자 kdh@

DC 전력망 기술 중심, 2170만弗 수출 성과

한전 빅스포 성황리 폐막

국내 대표 에너지산업 박람회인 한전 빅스포(BIXPO) 기간 중 2170만달러 수출계약이 체결됐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6일~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빅스포 2024'가 2만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10년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에너지 미래로 향하는 여정'을 주제로 에너지 분야 전반의 현 수준과 미래 기술 트렌드를 선보이며, 에너지 신기술과 신사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특히 미래 에너지 신기술들을 선보였고, 행사 전반에 걸쳐 DC(직류) 전력망 기술을 핵심 주제로 삼아 에너지 전환 시대 미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첫 시행된 신기술 공개행사(Unpack)에는 유니콘, 대기업 등 혁신기술 보유 8개사가 참여해 세계 최고·최초 기술을 공개해 전문가와 관람객의 이목을 끌었다.

LS 일렉트릭, LS 전선, HD 현대일렉트릭, 아모지, 스탠다드에너지, 포네이처스, 코리아모빌리티 등 주요 에너



한국전력이 지난 6~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빅스포 2024' 신기술 공개행사에서 에너지 신기술을 공개하고 있다. /한전

지 기업들은 인공지능(AI)과 친환경 전력망 관련 첨단 기술을, 한전과 발전5사 등 에너지공기업들은 DC 전력망,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IDPP) 등 차세대 에너지 신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수출상담회에는 국내외의 40여개사가 참여해 MOU 8건을 포함해 총 11건, 2170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빅스포 2024는 직류 전력망 등 기술 혁신을 통해 미래 에너지 산업의 비전을 제시하며 글로벌 기술 엑스포로서의 위상을 확립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술과 비전을 통해 전력산업 발전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베트남에 콜드체인 복합물류센터 구축

해수부, 상온·냉동 3만7843㎡ 규모

해양수산부는 이달 14일(현지시간) 베트남 하이퐁시 남딘부 항만의 단부 갯하이 경제 특별구역에서 제일건설이 시공하는 콜드체인 복합 물류센터 사업이 착공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수부는 그간 하이퐁 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베트남 북부 지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구축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지원했다. 이번에 착공되는 물류센터는 상온과 냉동 창고를 모두 갖춘 3만7843㎡(1만1447평) 규모의 복합물류센터이다. 오는 2026년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며, 다수의 국내기

업이 입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이퐁시는 베트남 북부의 주요 항구 도시로, 하이퐁시 동남부에 위치한 남딘부 산업단지는 항만 배후 시설과 보세구역 모두 갖추고 있는 핵심 물류 거점으로 평가받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그간 정부는 우리 기업이 안정적인 물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베트남뿐 아니라 유럽, 미국, 동남아 등에서 물류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고 말했다. 또 "현재 5곳인 해외 물류센터를 2027년까지 8곳으로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물류 거점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환경부, 에너지 전환·탄소감축 방안 모색

이들간 '환경기술개발 성과교류회'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한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2개 분야 사업을 주제로 '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2개 분야는 '자원·에너지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공정 기술개발 사업'과 '폐자원 활용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개발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같은 유기성 폐자원을 전처리, 혐기소화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에너지로 활용해 탄소 감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자원·에너지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공정 기술개발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되는 실증 사업으로, 가축분뇨와 하수 찌꺼기 등을 통합 처리하여 자원과 에너지를 회수하는 공정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에너지화 시설을 활성화하고 물 환경기초시설의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

'폐자원 활용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개발 사업'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되며, 도축 및 농산 잔재물 등 미활용 생물성유기물질(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에너지 지원 확보와 이산화탄소의 포집·정제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조수정 초대전

숨추며 노래
하는 빛들

Gallery **아람**

2024. 10. 24(목) ~ 11. 4(월) 갤러리아람

관람시간 11:00 ~ 19:00 (전시 마지막 날 12:00 마감 / 매주 일, 월 휴관)

갤러리 아람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315 신안빌딩 1층 문의 02.6743.3370

주최 Gallery **아람** 후원 **아람비** ARAMBI 동성제약주식회사 신안개발

전남도, 전지훈련 최적지 '자리매김'... 801억 경제 파급효과

(약 1년간)

62개 종목, 84만명 선수단 방문
지난 시즌 73만명비 15% 늘어
자체 예산 19억 투입해 유치 지원

온화한 기후에 천혜의 경관과 맛깔스런 남도음식을 두루 갖춘 전남이 국내 전지훈련 성지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2024시즌 전지훈련과 체육대회 참여를 위해 62개 종목, 2436개 팀, 연인원 84만 명의 선수단이 전남을 찾아 801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시즌 73만 명보다 15% 늘어난 규모다. 전국체전과 전국소년체전 등을 잇따라 성공 개최 하면서 방문자가 늘었고 전지훈련 최적지로서의 인지도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지훈련 주요 종목은 축구, 야구,



전남에서 전지훈련하는 선수들.

농구, 배드민턴, 태권도, 전제 유치 종목의 53%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경기, 서울, 광주, 전북, 경북 순이다.

시·군에서는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과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숙박비·식비·간식비·이동차량 지원, 경기용품 지급, 관광 체험 지원, 스토브리그 개최비 지원 등 자체 예산 19억 원을 들여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실제 강진군은 전국 규모 펜싱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실내체육관 한 곳이 부족해 장흥군과 협력사업을 추진, 군(郡) 단위로는 이례적으로 선수단 3000여 명 규모로 3일간 열리는 제21회 한국중고펜싱연맹 선수권대회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또 해남군은 전문트레이너 5명이 상주하는 동계훈련재활센터를 무료 운영, 1600명이 이용했고, 완도군은

수중운동, 수압마사지 등 해양치유센터의 무료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해 43개 팀, 870명을 유치했다.

선수단과 대회참가자, 선수가족들은 전남에 체류하는 동안 음식점, 숙박업소, 마트, 관광지 등을 이용하면서 생활인구 유치 효과로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전남도는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 우수 시·군 격려를 위해 매년 종합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강진군이 최우수상, 해남군과 목포시가 우수상, 여수시와 영광군이 장려상, 완도군과 무안군이 노력상을 받았다.

전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소멸 위기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생활인구 확보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최우선 과제"라며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전남에 활력을 불어넣고 스포츠 관광 홍보에도 더욱 힘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전남교육청

시도교육청평가 '최우수'

전라남도교육청이 '2024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는 ▲ 국가 교육·돌봄 책임 강화 ▲ 교육의 디지털 전환 ▲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등 20개 지표를 토대로 이뤄졌다.

전남교육청은 20개 평가 항목 중 시범 지표 2개를 제외한 18개 지표 모두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 늘봄학교 지원 강화 ▲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 등의 세부 지표는 기준값을 상회하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남=양수영 기자

순천시

수능 수험생 관광지 무료입장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에게 관내 주요 관광지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혜택은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제공되며, 순천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이 대상이다.

무료입장을 위해서는 수험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수험표가 없더라도 고3 담임교사의 인솔을 받은 단체 학생의 경우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순천(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경남도-테크노파크, 국비 79억 확보 정밀기계·메디컬社 디지털성장 지원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2.0
1개 분야 선정... 내년부터 3년간 지원

경남도와 경남테크노파크(이하 경남TP)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지역 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2.0' 사업에 선정돼 2025년부터 3년간 첨단 정밀기계 및 항노화·메디컬 산업 영위 기업의 디지털 성장을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역특화 프로젝트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경남도의 정책 수단과 사업을 총동원해 기업이 필요한 분야를 원스톱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경남도는 2024년도 첨단 정밀기계·항노화·메디컬 1개 분야에 선정돼 2025년 사업비로 국비 79억원을 확보했다.

경남도와 경남TP는 글로벌 제조 산업 첨단 전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지역 제조 기업의 AI 범용성 확대(AI·X), 디지털 혁신(DX), 친환경·ESG

경영 확대(GX)를 콘셉트로 '주력 산업 트랜스포메이션(AI, DX, GX)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기업이 첨단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끌어내고자 한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혁신마우처 ▲수출마우처 ▲중소기업 정책자금 ▲창업중심대학 ▲스마트 공장 ▲중소기업 연구 인력 지원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사업과 지역 첨단 정밀기계·항노화·메디컬 분야 지원사업을 수혜받을 수 있다.

경남TP 김정환 원장은 "과거 국내 제조업 중심이었던 경남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제조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첨단 정밀기계·항노화·메디컬 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대구시, 로봇SI 산업 예산 312억 확보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1.0

대구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1.0' 사업을 통해 추진 중인 'ABB융합 로봇SI 제조 혁신' 프로젝트에서 2025년 기업지원 예산으로 국비 312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진행되며, 올해 3월 78개 참여기업을 선정해 혁신마우처, 수출마우처, 정책자금 지원, 스마트 공장 구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총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특히, 전체 참여기업의 64.1%에 해당하는 50개 기업이 한 해 동안 1개 이상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받아 높은 실수혜율을 기록했다.

2025년에는 전년 대비 3배 증액된 312억 원의 지원 예산이 배정되며, 신규 인력 채용 지원, 기술보증기금 융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맞춤형

정책 지원이 추가될 예정이다. 참여 기업들은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아 보다 효과적으로 제조 혁신과 성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로봇SI 산업 발전에 관심 있는 지역 기업들의 추가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총 8개 기업을 추가 모집 중이다. 이에 따라 사업 주관기관인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은 11월 15일 설명회를 개최하며, 참가 신청은 11월 26일까지 접수받는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ABB융합 로봇SI 제조혁신 과제"가 지역 로봇SI 기업과 소재·부품 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5년 확대된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로봇산업이 대구의 중심 산업으로 자리 잡아 튼튼한 지역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준환 기자 kih9@

경북도, APEC 정상회의 공식슬로건 공모

내달 1일까지 진행

경북도가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

13일 경북도 APEC 준비지원단에 따르면 오는 12월 1일까지 '대국민 공모전, 함께해요! APEC 2025 KOREA'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내년 APEC 정상회의 경북 경주 개최 의의와 효과를 잘 나타내고 간결하면서 호소력이 있는 표어 문구(국·영문 혼용 30자 이내)를 내용으로 1인 3건까지 응모할 수 있다.

APEC 준비지원단은 독창성과 상징성, 효과성, 적합성 총 4개 항목으로 평가하고 1차 실무부서 심사·2차 외부 전문가 최종 심사를 거쳐서 총 11건을 선정한다.

결과발표는 오는 12월 20일 예정돼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등 총 11명에게는 소정의 시상금과 도지사상·경주시장상이 수여된다.

최종 채택된 문구는 APEC 공식 엠블럼과 함께 정부·경북도·경주시 APEC 정상회의의 주요 홍보 매체에 활용될 예정이다. /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김해시,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최우수'

환경부 주관 운영평가 선정

김해시가 환경부 주관 2024년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탄소 중립포인트제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 절감 실적에 따라 현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제도로 환경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22년부터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시는 시행 첫 해인 2022년 최우수, 2023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또 다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난 12월 서울 LW컨벤션에서 열린 탄소중립포인트제 지자체 담당 공무원 워크숍에서 시는 최우수 지자체



김해시가 환경부 주관 2024년 탄소 중립포인트제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김해시

현판을 수여받고 담당공무원은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 중립포인트제'를 주제로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평가 항목은 제도 참여자 수, 온실가스 감축량,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 등이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영양군

'제1회 사회복지박람회' 열려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지난 12일 영양군이 주최하고 영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오도창, 민간위원장 김길동)가 주관하는 제1회 영양군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영양군 내 사회복지 기관과 단체들이 참여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정보를 소개했으며 노인복지, 아동·청소년 복지, 장애인 복지, 정신건강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 서비스가 전시되어 관람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이날 박람회는 영양군 내 사회복지 기관과 단체들이 참여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정보를 소개했으며 노인복지, 아동·청소년 복지, 장애인 복지, 정신건강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 서비스가 전시되어 관람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골드키즈 시대’ 이유식 등 프리미엄 먹거리 매출 급상승

영유아식 시장규모 3000억

국내 출산율이 지속 감소하는 저출산 기조가 심해지는 가운데에서도 영유아식 시장 규모는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분유를 제외한 국내 영유아식 시장 규모는 2016년 1320억원에서 2022년 2534억원으로 92% 성장했으며 2025년에는 295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신생아 수는 감소했지만, 오히려 한 명의 자녀에게 지출 비용을 늘리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다.

대형마트 3사도 지난해 이유식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는 15%, 이마트는 13%, 홈플러스는 17% 가량 늘었다. 홈플러스에서 판매된 이유식 매출액은 전년 대비 17% 늘었다. 영유아식 전문 플랫폼의 경우 매출액이 더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는 이유식을 직접 집에서 만들어 먹이는 게 일반적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맛별이 부부가 늘고 시중에 프리미엄 이유식 제품이 늘어나면서 영유아식 구매를 선호하는 추세다.

이 같은 고객 수요를 잡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순수본의 프리미엄 영유아식 브랜드 ‘베이비분죽’은 이유식과 함께 곁들여 영양 밸런스를 돕는 제품 ‘토픽 볶은한우’로 토픽 이유식 트렌드를 이끌며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초록베베 이유식 카테고리 제품.



/정육각 베지밀 킨더랜드 프리미엄.

/정식품

베이비분죽 ‘토픽 볶은한우’ 인기 초록마을 ‘초록베베’ 80여종 선봬 매일유업 브랜드 ‘리케’ 상표출원 정식품 ‘베지밀 킨더랜드 프리미엄’

우’로 토픽 이유식 트렌드를 이끌며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제품은 2022년 10월 첫 출시 이후 부모들 사이 입소문을 타며, 2024년 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81%의 판매량 증가를 보이며 효자 제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제품의 인기 배경에는 정직한 함량과 밸런스 있는 영양 설계 등 고객 수요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베이비분죽의 노력이 자리한다.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한우 70% 압도적인 함량으로 볶은 한우를 사용하여 생고기를 사용하여 조리할 때보다 1.8배 많은 양을 담았다. 필요한 만큼 이유식에 더할 수 있도록 소분 사용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장점이다.

초록마을은 지난해 8월 영유아식 브랜드 ‘초록베베’를 론칭하고, 신선식품부터 가공식품까지 80여종의 다양한 영·유아식을 판매중이다. 기존 인기 상품인 초신선 이유식용 한우 다짐육을 필두로 이유식 카테고리를 강화하고 있다. 친환경 원재료 위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로 이유식 초기부터 중·후기, 완료기 및 유아식까지 아우르는 구색을 갖췄다.

매일유업은 최근 유아식 브랜드를 염두에 두고 ‘리케(Lykke)’라는 상표를 출원했다. 매일유업은 분유 ‘엡솔루트’, 유아식 ‘맘마밀’, 아동 간식음료 ‘키즈부스트’ 등 유아식 사업을 하고 있다. 기존 사업 강화 일환으로 유아식 브랜드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제품을 개발중이다.

정식품은 최근 성장기 아이를 위한 영양간식 ‘베지밀 킨더랜드 프리미엄’을 새롭게 선보였다.

베지밀 킨더랜드 프리미엄은 10종의 비타민과 5종의 무기질을 함유했다. 하루 2팩으로 성장기 유아의 평균 영양 섭취량 중 칼슘과 철분의 부족분(2021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민영양 통계 1-2세 기준)을 보충할 수 있다.

‘베지밀 인펀트 프리미엄’은 생후 6개월부터 12개월, ‘베지밀 토픽 프리미엄’은 12개월부터 24개월, ‘베지밀 킨더랜드 프리미엄’은 24개월 이상 유아를 위한 제품으로 월령별 맞춤형 영양 공급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골드키즈 트렌드’에 따라 영유아식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 사업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며 “직접 만들어 먹이는 것도 좋지만, 연령별로 요구 되는 영양성분을 고려해 생산된 시판용 제품을 선호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프리미엄 영유아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마트

한돈 삼겹살 등 할인 ‘뽕큐절 어게인’ 행사

롯데마트가 국가 대표 소고기 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동참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롯데마트는 이달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뽕큐절 어게인’ 1주 차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행사카드 결제 고객을 대상으로 돼지고기 제품을 할인가에 선보인다. ‘한돈 삼겹살(100g)’은 1490원에, ‘한돈 목심(100g)’은 1788원에 제공한다.

김장 재료도 할인가에 판매한다. ‘배추(3입/방)’은 5880원에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제공한다. ‘다밭무(1단)’는 5992원에 14일부터 20일까지 구입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간마늘(1kg/봉)’과 ‘간쪽파(200g/봉)’는 각각 7192원, 3192원에 선보인다.

인기 먹거리 상품도 특가로 준비됐다. 4990원에 ‘상생 대봉시(4입)’ 상품을, 2990원에 ‘스위트마운틴 바나나(1.2kg 내외)’ 상품을 제공한다. ‘양준혁 대방어회(300g 내외)’는 3만6000원에, ‘고등어자반(특대)’는 3834원에 할인 판매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반려동물 빅데이터로 PB제품 개발... 고객 니즈 충족”

인터뷰

김승하

펫프렌즈 고객감동팀 BM

품질·안전성·가성비 ‘베프’ 론칭 PB·24시간 상담·빠른배송 ‘강점’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빠른 배송과 제품 큐레이션 서비스로 반려동물 쇼핑물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펫프렌즈’가 지난 3월 품질, 안전성, 가성비 3박자를 고루 갖춘 PB(자체브랜드) ‘베스트프라이스(베프)’를 론칭하고 빠르게 제품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다.

〈메트로경제신문〉은 펫프렌즈 고객감동팀의 김승하 파트장(BM)을 만나 펫프렌즈만의 차별화된 서비스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김승하 펫프렌즈 고객감동팀 BM /펫프렌즈

2016년 펫프렌즈 창업멤버로 입사한 김 파트장은 시장 트렌드와 고객의 니즈를 고려한 반려동물 용품 기획과 마케팅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베프BP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 펫프렌즈는 ‘호랑이’, ‘로코모래’, ‘우다다맨손’, ‘베프BP’ 등 총 70여종에 달하는 PB를

보유하고 있다. PB 상품들은 펫프렌즈 총 매출액의 23% 이상을 차지한다.

김승하 파트장은 “펫프렌즈는 타사에는 없는 반려동물 빅데이터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PB제품을 개발하기 때문에 고객의 수요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며 “프리미엄 브랜드와의 독점 제휴 및 자체 PB 개발, 24시간 상담센터 운영, 빠른 배송이 강점이다”라고 말했다.

수의사와 함께 개발한 PB도 있다. ‘로코’ 브랜드는 반려동물 건강 전문가 김명철 수의사와의 협업으로 탄생한 펫프렌즈의 대표적인 PB다.

김 파트장은 “김명철 수의사가 제품 기획 전반에 참여했으며, 반려동물 영양과 행동학적 요소, 안전성까지 심층적으로 고려했다”며 “단순한 용품을 넘어 반려동물의 일상 속 건강관리와 예

방적 케어가 반영된 브랜드인 만큼 반려인들의 신뢰도가 높다”고 말했다.

최저가격을 앞세운 베프BP도 빠르게 성장중이다. 고양이 모래도 다양하게 출시해 선택 폭을 넓혔다. 품질도 엄격한 집진 공정과 ISO, SGS 인증 시설을 통해 보장하고 있다.

반려인 충성도가 높아지면서 매출도 올랐다. 펫프렌즈는 지난 5월 월간 기준 순익분기점(BEP)을 넘어서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김 파트장은 “펫프렌즈는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고객과 반려동물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든든한 동반자를 목표로 한다”며 “향후 펫헬스케어와 같은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 전반에 걸친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정관장

1만원 ‘체험팩’ 이벤트 홍이장군 등 13종 혜택

KGC인삼공사가 정관장 인기 제품의 소비자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정관장 체험팩’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정관장 체험팩’ 이벤트는 정관장 매장에서 인기가 높은 ‘홍삼톤’, ‘화애락’, ‘홍이장군’, ‘아이패스’, ‘알엑스진’, ‘기다림’을 비롯해 정관장 뷰티 브랜드인 ‘동인비’까지 총 13종의 제품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정관장물 회원은 정관장물에서 ‘체험팩’ 쿠폰을 신청하고 5000원으로 정관장 인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정관장 체험팩’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에게는 정관장 제품 구매 시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만원 쿠폰을 각 1개씩 총 2장을 받아볼 수 있다. 쿠폰은 전국 정관장 로드샵과 정관장물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정관장은 ‘건강관리는 정관장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달 17일까지 ‘기다림 침향’, ‘아이패스’, ‘천녹부스팅’, ‘달임액’ 구매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12월 31일까지 알파프로젝트 포커스라인 6종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도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CJ프레시웨이, 온라인 식자재유통 강화

3분기 누적매출, 전년비 10배 성장

CJ프레시웨이가 온라인 식자재 유통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플랫폼 기업 등 외부 협력을 통해 잠재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고객 컨설팅의 일환인 외식 솔루션 기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CJ프레시웨이의 온라인 식자재 유통 규모는 올해 3분기 누적 매출 기준 전년 대비 10배 성장을 이뤘다. 오프라인 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B2B 식자재 유통 사업을 온라인 시장에 연결하는 O2O 전환에 주력한 성과다. 특히 온라인 및 데이터 사업에 주력하는 외부 플랫폼과의 협업 영향이 주효했다.

최근 CJ프레시웨이는 포스(POS) 솔루션 기업 오케이포스와의 협업 모델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26만여 가맹점을 보유한 국내 1위 사업자다. 양사는 2022년 업무협약 체결 이래 식자재 주문 시스템 연동, 외식 브랜드 론칭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CJ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 사업의 O2O 전환과 동시에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외식 솔루션(고객 사업 컨설팅) 역량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내

최대 규모 식자재 유통기업의 노하우와 기술 플랫폼의 데이터 인사이트를 결합해 독보적인 고객 경험을 설계한다는 목표다.

이들태연 POS 주문 연계 시스템을 통해 메뉴 판매 추이, 식자재 주문량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외식 트렌드 및 상품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프랜차이즈 브랜드 기획, 메뉴 개발, 점포 운영 컨설팅 등 솔루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하는 식이다.

/신원선 기자

러닝화 중심 '풋웨어 시장' 성장세... 업계 공급경쟁 '후끈'

지난해 국내 운동화 시장 규모 4兆
지난 한 달간 러닝화 거래액 7배 ↑
나이키, 어린이 대상 러닝화 출시
안다르, 기능성 상품 전략 내세워
어그, 남성고객 중심 매출 52% ↑
무신사, 스니커즈 거래액 대폭 늘어



무신사 성수 대림창고 스니커즈 존. /무신사

국내외 러닝화를 중심으로 운동화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전체 풋웨어 시장 역시 성장세를 탈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는 러닝화, 스니커즈, 부츠 등 다양한 신발 상품을 선보이며 공급 경쟁에 나서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동절기가 다가오며에도 불구하고 러닝화 수요가 지속되면서 운동화 시장을 포함한 전체 풋웨어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실제로 국내 운동화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왔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운동화 시장 규모는 2019년 3조1300억원에서 2023년 4조원으로 성장했다. 또한, 카카오스타일 통계에 따

르면 지난 한 달간 러닝화 키워드가 포함된 상품 거래액 역시 7배 이상(63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화 시장의 성장은 해외에서도 두드러진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테니스 선수 로저 페더리가 후원하는 신발 제조 업체 'on'의 분기별 매출이 추정치를 뛰어 넘었다고 밝혔다. 연말 시즌 수요에 힘입은 결과라 업계

분석이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비즈니스 리서치 인사이트 역시 통계 자료 발표를 통해, 지난 2023년 전 세계 운동화 시장 규모는 1060달러였으나 향후 2032년에는 1445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운동화 시장이 주요 수익원으로 떠오르면서 공급자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나이키는 타깃 연령층을 넓혀 시장

경쟁에 나섰다. 나이키는 어린이 대상 러닝화 제품인 '코스믹 러너'를 출시했다. 제품은 특수 잉크 및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레이어드 헵틱 프린팅이 적용됐으며, 3D 질감을 더해 신발 윗부분이 마모되지 않도록 제작했다.

에슬레저 브랜드 안다르는 기능성 상품 전략을 내세웠다. 안다르는 무릎과 발목 충격을 막아주는 신제품 '안다르 제트

플라이' 러닝화를 선보였다. 자체 연구개발(R&D) 조직인 '안다르 이노베이션 랩'내 연구와 테스트를 거쳐 제작했다는 게 안다르 측 설명이다. 이 외에도 푸마는 '디비에이트 나이트로(디나) 3' 시리즈, 쿠셔닝화 '매그맥스 나이트로' 등을 출시하며 러닝화 제품군을 강화했다.

운동화 시장의 확대로 전체 풋웨어 시장의 성장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신세계인터내셔널에 따르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어그'의 매출이 남성 고객을 중심으로 52% 증가했다. 무신사도 올해 상반기 스니커즈 거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는 신발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요즘은 러닝화나 스니커즈를 중심으로 신발 시장 성장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신발은 다양한 소비 트렌드나 스포츠 유행 등에 따라 수요가 생기는 만큼, 시장은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LG생건, 색조브랜드 인기에 매출 '썰렁'

VDL, 3분기 매출 전년비 348% ↑
글린트, 하이라이터 스테디셀러 등극
코드글로컬러, 전체 매출 225% ↑



LG생활건강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글린트가 지난 9월 '무신사 뷰티 페스타 인 성수' 팝업스토어 행사에 참여해 신제품 '틴트 글로서'를 선보였다.

LG생활건강의 색조 브랜드 VDL(브이디엘), 글린트 바이비디보브, 프레시안, 코드글로컬러가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면서 매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팝업스토어와 소셜미디어(SNS)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가 쌓인 데다 믿을 수 있는 품질과 합리적 가격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구매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LG생활건강에 따르면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VDL'은 대표적인 헬스앤뷰티(H&B)스토어 올리브영에서 올해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48% 신장했다. 올해는 주력 제품인 '톤 스테인 컬러 코렉팅 프라이머'와 '커버 스테인 퍼펙팅 파운데이션' '치크 스테인 블러셔'를 각각 기획세트로 출시해 '올리브영이 선정한 브랜드(8월 올영픽)' 행사에서 파운데이션 판매 1위를 달성했다.

'K-하이라이터'를 이끌고 있는 '글

린트 바이비디보브'(이하 글린트)는 2020년 9월 첫 출시한 하이라이터 제품이 누적 판매 72만개(10월 말 기준)를 돌파하면서 스테디셀러로 등극했다. 지난해 8월에는 하이라이터와 동일한 제형으로 '베이크드 블러셔'를 선보이면서 현재까지 누적 판매 12만개를 돌파했고, 최근 올리브영 메이크업 및 블러셔 카테고리 1위에 이름을 올렸다.

3분기에는 신제품 '틴트 글로서'의 활약으로 브랜드 전체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5% 올랐다. '코드글로

컬러'는 올 여름 한정 기획세트로 선보인 '픽스온 프라이머'가 매출을 견인하면서 3분기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 늘었다.

비건 메이크업 브랜드 '프레시안'은 유명 아이돌 메이크업 아티스트 '나검쌤'과 공동 개발한 신제품 '에그라이크 크림 블러셔'가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10~13일 진행된 '뷰티 컬러 기획전'에서 이들 만에 품절, 메이크업 카테고리에서 매출 1위를 달성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CJ바사, '약물 반응성 AI 예측모델' 개발

美 SITC서 기술개발 성과 발표

CJ바이오사이언스는 '2024 미국 면역항암학회(SITC)'에서 인공지능(AI) 모델을 활용해 약물 반응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성과를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면역항암학회는 전 세계 70개국 이상의 의료계·산업계 전문가 4600여 명이 활동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면역항암학회다.

최근 CJ바이오사이언스는 CJ그룹 A

I실과 공동연구를 진행해 '약물 반응성 마이크로바이옴 바이오마커 AI 예측모델(이하 AI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 'AI 예측 모델'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특정 약물의 반응성을 환자의 장내 미생물을 통해 예측하는 기술이다. 암 치료에 자주 쓰이는 면역관문억제제와 같은 약물은 환자 반응률이 20~30%밖에 되지 않아 사전 반응성 확인이 필요하다.

CJ바이오사이언스는 신약개발 플랫폼인 '이지엠' 플랫폼으로 면역관문억

제제의 반응성 확인을 통해 모델의 정확성을 검증했다. 비소세포암·흑색종·신세포암 환자 942명의 데이터와 1만3400여명의 장내 미생물 유전체 데이터를 통해 모델 학습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머신러닝 모델 보다 약 15% 이상 예측 정확도가 향상됐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또한 CJ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연구를 통해 면역 체계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라크노시라피에' 계열의 장내 미생물이 면역관문억제제 반응 예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세경 기자

동아제약, 멜라노사크림 디자인 리뉴얼

기미·검은 반점 등 착색 완화 도움

동아제약은 기미치료제인 멜라노사크림을 리뉴얼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멜라노사크림은 자사 브랜드인 색소 침착치료제 멜라토닝크림의 패밀리룩으로 패키지 디자인을 리뉴얼한다.

멜라노사크림은 멜라토닝크림 대비 주성분인 히드로퀴논이 2배 함유되어 착색이 심한 기미나 검은 반점 등에 사용하면 착색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주성분인 히드로퀴논은 멜라닌 생성

을 촉진하는 효소인 티로시나아제를 억제해 멜라닌이 과도하게 생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멜라닌이 생성되는 멜라닌세포의 멜라닌소체 모양을 변화시켜 과다 침착된 색소를 탈색하는 이중 작용으로 피부 색소침착을 치료한다.

멜라노사크림은 가벼운 백색 크림 제형으로 1일 1~2회 환부에 국소적으로 톡톡 찍어 도포하면 된다. 낮 시간 외부에서 사용 시 자외선 차단제를 2~3시간 간격으로 도포해야 하기에 취침 전 사용을 권장한다. /이세경 기자

애경 '바이컬러', 위키드 리미티드 에디션

데졸링·치어리 치약 더블기획 세트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의 뷰티 덴탈 브랜드 '바이컬러'(BYCOLOR)가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함께 영화 '위키드'(Wicked)를 테마로 한 '바이컬러X위키드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였다.

바이컬러는 미국 영화 제작사 및 배급사인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함께 마케팅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바이컬러X위키드 리미티드 에디션을 기획했다.

특히 바이컬러의 '본연의 색을 찾아 진정한 나다움을 표현한다'는 의미와 '자신의 진정한 본성과 힘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영화의 메시지가 부합한다고 판단해 디자인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다.

바이컬러X위키드 리미티드 에디션은 영화의 주인공인 '엘파바'와 '글린다'를 상징하는 초록색과 분홍색을 제품 패키지에 적용해 영화를 연상할 수 있는 디자인을 구현했다.

특히 어두운 곳에서도 빛을 내는 촉광원료를 제품 패키지에 적용해 밝은



바이컬러X유니버설 스튜디오 영화 위키드 리미티드 에디션.

곳에서는 바이컬러의 로고가 보이고, 어두운 곳에서는 위키드 로고가 나타나는 매직 포인트를 적용했다.

바이컬러X위키드 리미티드 에디션은 구강 고민에 따라 제품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누런 치아가 고민인 분들을 위한 '데졸링 치약 더블 기획 세트' ▲입냄새와 입 속 텅텅함이 고민인 분들을 위한 '치어리 치약 더블 기획 세트' 2종으로 구성됐다. /이세경 기자



주제 : 초현실사회로 : AGI가 재편하는 미래 생태계

일시 : 2024년 11월 20일(수) 14:00~17:10

장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문의 : 2024 뉴테크놀로지포럼 사무국 02)721-9818

참가비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이메일 : forum@metroseoul.co.kr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초현실사회로 AGI가 재편하는 미래 생태계

2024 뉴테크놀로지포럼

2024년 11월 20일(수) 오후2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두산밥캣-광양시-로지스폴, 수소 지게차 보급 확대
 두산밥캣은 전라남도 광양시, 한국로지스폴과 광양 수소도시 사업 협력과 수소 지게차 보급 확대를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왼쪽부터) 성중국 한국로지스폴 본부장, 김기홍 광양시 부시장, 김상철 두산밥캣코리아 전무가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두산밥캣



2024년 국가고객만족도 1위 기업 인증식
BNK부산은행, '국가고객만족도 조사' 지방은행 1위
 BNK부산은행은 한국생산성본부(KPC)가 발표한 '2024년도 국가고객만족도 조사(NCSI) 결과 지방은행 서비스업 부문에서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손대진 BNK부산은행 고객기획본부장(가운데)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NK부산은행



거레소, 부산지역 청소년 장학금 6000만원 후원
 한국거레소는 13일 부산 소재 한국거레소 본사에서 부산지역 체육꿈나무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6000만원을 부산광역시체육회에 후원했다. 정은보 한국거레소 이사장(왼쪽), 장인화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레소



대신타이낸셜그룹, 나주시에 사랑의 성금 전달
 대신증권은 이여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이 전남 나주시청과 나주시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사랑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여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가운데)이 사랑의 성금 전달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신타이낸셜



인하대, '지능화 혁신인재 양성 산학연 협의체' 발족
 인하대학교는 '지능화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역지능화 센터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KG스틸 등 제조 AI 융합전공 석사 학위과정에 참여하는 12개 기업·기관과 산학연 협의체로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지능화 혁신을 위한 협력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인하대

LG전자-환경부, 화학사고 대응역량 강화

**교육·훈련 협업체계 구축 MOU
 VR 콘텐츠 활용... "안전문화 확산"**

LG전자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과 손잡고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 사고 대응 역량을 높인다. LG전자는 13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화학물질안전원과 '화학사고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식에는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 권순일 LG전자 안전환경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LG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화학 물질 관련 다양한 안전 사고 상황을 가상으로 구현한 가상현실(VR) 안전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형 안전 교육을 진행한다. 기존에 운영 중인 전 임직원 대상 안전



권순일 LG전자 안전환경센터장(왼쪽)과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화학사고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전자

보건교육 과정에 추가해 체험형 교육을 진행한다. LG전자는 마곡 LG사이언스파크를 시작으로 평택 디지털파크, 창원 스마트파크 등 국내 사업장 안전체험센터에서 해당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화학 사

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임직원들에게 화학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안전 문화 확산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LG전자 임직원들은 VR 기기를 활용해 실험실 사고 등 산업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 사고 상황의 모의 훈련을 진행하며, 실전 경험을 통한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다. LG전자는 화학물질안전원이 개발 중인 유독가스 누출, 화학 물질을 활용한 테러현장 등 실제 경험하기 힘든 사고 상황에 대한 안전 교육 콘텐츠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권순일 안전환경센터장은 "구성원들의 안전 의식을 높여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VR 등을 활용한 실감형 체험 교육을 강화해 안전 문화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우아한형제들 '인적자원개발 대상' 수상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13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대상'에서 종합 대상(플랫폼 부문)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한국HRD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대상은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HRD) 분야에서 남다른 노력을 쌓아온 기업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상을 수여한다.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HRD 부서의 이름을 '전사교육팀'에서 '성장파트너팀'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해 운영하며 구성원 성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다. 단순한 교육 제공을 넘어 조직과 구성원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돕는 것이 목표다.

곽지아 우아한형제들 조직문화혁신본부장은 "구성원들이 일을 통해 성장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

현대차, 교통사고 유자녀 돕는다... 장학금 1억 전달

**'베스트 셀링카 특별할인' 적립금
 "이웃 위한 나눔 활동 이어갈 것"**

현대자동차가 교통사고 피해 가정 유자녀 지원을 적극 이어간다. 현대차는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를 위한 장학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차는 전날 서울 강남구 사옥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희망봉사단에 1억원을 전달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대학교 정



현대차 김승찬 국내판매사업부장(왼쪽), 한국교통안전공단 장찬욱 교통안전본부장이 12일 현대차 강남대로 사옥에서 '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하고 있다.

규학기에 다니는 피해자 본인, 유자녀 등 50명을 선정해 200만원씩 지

원할 예정이다.

기부금은 현대차 누적 1억대 생산을 기념한 '베스트 셀링카 특별할인'에서 한 대 판매당 10만 원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누적 차량 생산 1억 대를 기념하고 고객들에게 감사 전하기 위해 이번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유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최재호 유진기업 대표 임직원 자녀 수능 응원

유진그룹 모회사인 유진기업이 올해 수능 시험을 앞둔 임직원 자녀들에게 수능 응원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13일 유진그룹에 따르면 유진기업은 14일 있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자녀를 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응원 선물을 전달하고 격려에 나섰다.

수능 응원 선물세트에는 격려의 메시지가 담긴 편지와 함께 스타벅스 텀블러와 고디바 초콜릿, 과자세트를 비롯해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백화점 상품권과 다이어리 등을 담았다.

최재호 유진기업 CEO는 직원 수험생 자녀들에게 보낸 격려편지에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굳세고 담담하게 앞으로 나아가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한다"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GS칼텍스, '메세나대상' 대통령 표창

지역민 등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

GS칼텍스가 지역민과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GS칼텍스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되는 '2024 메세나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메세나협회가 주최하고 문



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메세나 대상은 지난 1999년부터 국내 기업 중 문화예술분야 발전에 헌신한 기업을 뽑아 매해 시상하고 있다.

GS칼텍스는 지난 2012년 'GS칼텍스 예술마루'를 건립하고, 2019년 '예술의 섬 장도'를 신규 조성하는

등 예술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허세홍 GS칼텍스 사장(사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GS칼텍스는 문화예술분야에서 다양한 메세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및 지역사회와 함께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장을 마련하고, 나눔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KT&G, '대한민국소통어워즈' 2관왕

소셜미디어, 인터넷소통 부문

KT&G가 '제17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의 '소셜미디어대상'과 '인터넷소통대상' 2개 부문에서 식품·유통 기업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소통어워즈'는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 국내 디지털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소통·마케팅 시상식이다.

'제17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에서 KT&G는 소통·공감 등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한 SNS 채널 운영과 캐릭터 및 임직원을 활용한 공감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기업홍보 메인 채널인 유튜브 '케인사: KT&G INSIDE'는 신입사원으로 출연한 개그맨 이수지를 통

해 KT&G 사업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는 '케취극장'과 임직원들에게 직무와 취업 이야기를 들 수 있는 '취업라떼토크'를 운영해 구독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인스타그램은 KT&G 커뮤니케이션실 직원으로 설정된 '케프로' 캐릭터를 통해 유저들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밈'과 '챌린지'를 꾸준히 운영해, 전년 동월 대비 팔로워수가 45%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인사

◆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사회서비스정책관 유주현

부음

▲양희성씨 별세, 형욱(파이낸셜뉴스 디지털콘텐츠실장 겸 이사)씨 부친상, 희복씨(대전 선진약국 약사)씨 형님상=13일 오후 12시 35분,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15일 오전, 042-600-6660. ▲하규복 씨 별세, 하은호(경기 군포시장) 부친상=13일 오전, 화성 함백산 장례식장(경기 화성시 매송면 서해로 2448-32) 5호실, 발인 16일 오전 7시40분, 031-293-4244 ▲박희자씨 별세, 맹연씨 부인상, 맹동조(스크린에이치디코리아 부사장)·현순·동린씨 모친상, 맹찬호(테일러안정책계부기자)·시연씨 조모상=13일 낮 12시, 수원오양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5일 오전 8시, 장지 경기 양주 일원, 031-640-9797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운명



이수준의 부동산 수첩

어떤 제도이건 그것이 최초로 도입될 때부터 그 명운을 어느 정도 예상하게 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그랬다. 이 제도는 2006년에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도입되었으나 세법상의 근본적 모순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겹쳐서 한동안 적용하지 않다가 2019년도에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부과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이에 대한 폐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물가상승 등으로 주택공급의 큰 축인 재건축이 침체된 것이 이유이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통상 재건축사업의 건축비는 강남과 지방의 차이가 없다. 새로 짓는 아파트의 가격 차이는 결국 땅값의 차이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이 근본적인 땅값의 차이에 대해, 새집을 짓는 건축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징벌적으로 부과한다.

이 제도가 주로 적용되는 강남권의 경우 조합원들이 보유한 비싼 땅의 일부를 팔아서 새집의 건축비를 충당하고 아파트

층수를 높여 무주택 청약자들에게 새집을 공급한다. 즉, 내 땅을 포기해서 남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대가로 내는 세금이다.

재건축 조합원은 건설사에 조합원 추가 부담금(전체 재건축 사업비 중 일반분양 이익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잔여 비용)을 내야 한다. 여기에 수익 원의 부담금까지 추가된다면 사업을 해도 이익이 없기 때문에 조합원은 재건축사업에 소극적이고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건설사도 참여를 꺼리게 된다. 이래저래 주택공급도 막히고, 외부 불경제(낮은 아파트로 인해 인근 도시 환경에 부정적인 효과)도 초래하게 된다.

세금은 본래 매출에서 원가 및 비용을 제외하는 회계적 과정을 통해서 확정된 이익에 따라 내야 한다. 그러나 초과이익환수제의 계산법은 아직 새집의 매각 여부, 그 손익조차도 결정되기도 전에 가상으로 예측한 차익에다 부과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회계 원칙과 다를 뿐더러 유사한 관행도 찾기 힘들다. 설사 나중에 시세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시점에는 어차피 그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때 미리 걷어간 추가이익환수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지만, 만약 양도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실거주자를 역차별하는 모순에 빠지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실현 이익의 조세로서 일부 해외 사례를 주장하지만, 한국의 재건축 제도하에서는 이를 개발부담금의 개념과 현물로 이미 납부하고 있다. 통상 재건축의 용적률을 올리는 대가로 그 토지의 일부를 국가가 기부채납 형태로 가져간다. 예컨대 100평 땅 위의 낮은 2층집(연면적 200평)을 재건축할 때, 보유한 토지 중 30평을 국가에 헌납하고 남은 70평 땅에 3층을 지어서 연면적 210평을 얻는 것이 보편적이다. 특히 대규모 단지는 공공을 위한 도로 확장 등의 제반 비용까지 부담하며, 재건축 이후에는 보유세도 더 내서 그 유지관리비용도 충당한다.

초과이익환수에 대한 유일한 옹호론은 사유재산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국민 정서였다. 그러나 경제 논리로 볼 때 국민 정서는 재건축의 당사자에게도, 무주택자에게도 실익을 가져다주지 못했다.

짧은 시행착오를 뒤로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초과이익환수라는 명칭이 없어지더라도 이를 보유 연수, 실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해주는 식의 또 다른 규제 대안이라면 매물도, 전세공급도 줄어들어 집값을 높이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까 우려된다. /로이에아시아컨설팅 대표

금융사각지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기지수첩 안승진 (금융부)

손가락을 몇 번 움직이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시대다. 디지털금융 확산으로 은행 점포는 자취를 감추고 있다. 10년 사이 시중은행 점포는 40% 가까이 사라졌다. 점포를 찾지 않는 디지털 네이티브(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세대)에게는 좀처럼 와 닿지 않는다.

ATM(현금 자동입출금기)이 사라지는 속도는 더 빠르다. 지난 2019년에는 전국에 3만6000대의 ATM이 있었다. 올해 7월에는 전국에 2만7000대의 ATM만 남았다. 은행들은 운영 비용 증가, 현금 사용량 감소를 ATM 철수의 이유로 들었다.

카드, 간편 결제 앱의 보급에 후대하기 번거로운 지갑은 사라졌고, 서울 시내에서 운행하는 100개 이상의 버스 노선은 현금 받지 않는다. 현금이 사라지면서 편리한 시대가 온 것 같지만, 디지털 금융이 낮은 누군가에게는 가혹한 시대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디지털 금융 이용률은 54.4%다. 고령자의 절반은 간단한 송금 업무에도 은행 점포나 ATM을 찾는다.

'금융사각지대'는 계속 넓어지고 있다. 전국 465개의 유인도 가운데 은행 점포가 있는 섬은 10곳도 되지 않고, 육지에도 4대 은행 점포가 없는 지자체가 약 50곳이다. 면적당 ATM 대수는 서울이 강원도보다 100배 많다. 은행권에서는 '금융 접근성 격차 해소'

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지만, 먼저 나서는 은행은 없다. 비용 때문이다. 통상 ATM 한 대를 유지하는 비용은 1년에 1000만원, 출장소 한 곳을 운영하는 비용은 1년에 5억원 안팎이다.

최근 몇 년간 은행권이 비용 절감을 통한 실적 개선에 사활을 건 만큼, '금융 접근성 격차 해소'는 은행권리 눈치를 보며 보폭을 맞추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됐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추이에 기름을 붓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경영지표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에 주안점을 둔 '밸류업'을 밀어붙이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의 요구에 은행들은 경영 효율화를 위해 앞으로 비용을 더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돈'이 드는 금융 격차 해소는 계속 멀어지고 있다. /asj1231@metrosoul.co.kr

오늘의 운세 11월 14일 (음 10월 14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주변에서 뒤돌아서서 부러워한다. 48년생 싫으면 떠나도록 가는 사람은 붙잡지 마라. 60년생 하늘도 파랗고 공기도 맑으니 기분도 상큼. 72년생 느긋하게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다. 84년생 세월이 흘러도 애는 생각은 버리지 마라.
- 소** 37년생 망설이는 사이 기회는 날아간다. 49년생 결과부터 챙기지 말고 계획을 잘 세워라. 61년생 외로움보다 참기 힘든 건 그리움이다. 73년생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마음으로 자긍심이 있어야 할 것. 85년생 장기투자는 심사숙고해서.
- 호랑이** 38년생 재혼하려면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마라. 50년생 근거 없는 칭찬에 마음에 봉 뜨지 말고 신중해야. 62년생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다. 74년생 변화 속에 기회가 온다. 86년생 필요 이상의 의미 부여는 상황을 왜곡.
- 토끼** 39년생 최선의 해결책은 서로 타협하는 것. 51년생 운이 활짝 열렸으니 미뤄둔 일을 해결. 63년생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참아야 한다. 75년생 즐겁게 계속 노력하면 하늘이 도와준다. 87년생 배우자가 보편적으로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 용** 40년생 가족은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52년생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멀리. 64년생 분수를 지킨다면 실수가 적다. 76년생 배타심을 버리고 힘들어도 걸어오던 길을 똑가야. 88년생 남의 의견에 휘둘리지 말고 주권을 갖고.
- 뱀** 41년생 부모님의 어려움을 살펴봐라. 53년생 내가 행복할 것이 인류 행복의 첫걸음이다. 65년생 새로운 거래가 생기니 이 또한 좋다. 77년생 즐거운 일이 남치는데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서 간다. 89년생 직장에 충실하고 외부활동을 자제.
- 말** 42년생 숨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날. 54년생 끝까지 참는 것이 오늘의 불운을 이긴다. 66년생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이득. 78년생 애뜻하게 키워주신 부모님을 연민하여 퇴근하여 살피자. 90년생 점심때 운조심을 하도록.
- 양** 43년생 약간의 먹구름이 끼었으니 주의. 55년생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마라. 67년생 강을 건넌어도 배를 소중히 간직. 79년생 백발백중을 버리고 정성을 모아 집중해볼 것. 91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니 최선을 다하라.
- 원숭이** 44년생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기니 타격이 크다. 56년생 좀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시작해야 한다. 68년생 부분적 결함이 전체를 망칠 수 있다. 80년생 투기와 투자를 잘 구분하는 것이 성공요소. 92년생 부모님의 명예를 소중하게 여겨보라.
- 닭** 45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다시 시작. 57년생 동료와 협업이 서로에게 이익이. 69년생 어린 사람과 다름이 생기니 말조심. 81년생 달콤한 속삭임은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바람 불면 날아간다. 93년생 심신이 고갈하니 휴식이 필요.
- 개** 46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말조심. 58년생 못 이룰 사랑 타령은 시간 낭비며 우울. 70년생 신세를 진 사람이 빚을 갚으러 온다. 82년생 성정은 타고나는 것이어서 선천적 기질을 어찌하는 못한다. 94년생 현실에 만족해야 후회가 없다.
- 돼지** 47년생 가정의 화목이 최고의 행복이다. 59년생 업무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먼저 실천하라. 71년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날 같아라. 83년생 손자병변에도 정신력이 강해야 이긴다고 했거늘. 95년생 새로운 것은 언제나 희망으로 연결되는데.



김상회의四季 죽어서도 사는 자

유한한 수명을 가진 인간은 영생을 꿈꿔왔다. 인간의 복을 말할 때 장수를 으뜸으로 쳤다. 오복의 첫 번째가 장수부터 호칭하며 불교에서 축원 발원을 할 때도 "수명은 장원하고"로 시작된다. 기독교에서도 현생의 몸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기독교는 매장을 원칙으로 한다. 왜? 죽은 몸이 부활해서 영생해야 해서 육신이 없으면 영생해야 할 재료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도교에서도 영생을 얘기한다. 그 대표적 인물이 신선이다. 신선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은 깊은 숲속 사람의 손길과 발길이 닿지 않는 청정한 곳에서 천년 이상의 수명을 취하다가 흔적과 자취를 감춘다. 존재 자체가 신비스러운 차원이다.

영생을 꿈꾼 대표적 인물은 진시황이다. 진시황릉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어마어마한 위용에 놀라움을 넘어 경탄했다. 방대한 규모의 병마용 1호갱 전경을 보면서 영원히 살고 싶어 했던 그 열망이 단지 역사서 속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고 지하 군대의 병사와 군마들은 이천년이 넘도록 황제를 지켜온 셈이다. 기원전 221년,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는 위업을 달성하면서 모든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쥔 그가 영원한 삶을 누리하고자 했음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인다. 그래서 불로초를 구하려 동방으로 사람을 보냈다. 당대의 도사라 이름난 인물들을 보냈지만 불로의 꿈은 이루지를 못했다. 그러나 그는 역사서에 중국 최초의 황제라는 엄청난 칭호와 법률과 도량의 단위, 문자를 통일한 것은 현재의 제도와 생활에도 이어지며 영향을 주는 거대한 치적으로 남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이건 동물이건 각각의 가치는 기억으로도 전승된다. 죽어서도 산다는 것은 이런 경우가 아닐까?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새벽하루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열과정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문제출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9	6		3	1	
					7			
4	9	1						6
	5			8				
8		2		4			6	
		7			5			
7					9	8	1	
		4						
5	2		3	4		6		

8			1					6
	4		2		8			
	9	6			2	1		
			3	5			9	
	7						3	
2			9	8				
	3	2			4	8		
		7		4	9			
4					2			1

문제출제: 손호성 http://www.argo9.com

QR코드

할인도서

6	2	9	1	7	8	8	2	9
2	9	8	2	8	9	7	1	6
7	1	8	6	2	9	9	8	2
8	7	9	8	1	2	2	6	9
2	9	6	7	9	2	8	1	
8	2	1	8	9	6	9	2	7
9	8	2	9	2	1	6	7	8
9	6	2	2	8	7	1	9	8
1	8	7	9	6	8	2	2	2

1	9	8	2	9	2	6	8	7
2	9	6	8	7	8	2	9	1
2	8	7	1	6	9	2	8	9
7	2	9	8	1	6	8	9	2
8	8	9	7	9	2	1	2	6
6	2	1	9	2	8	8	7	9
9	1	2	2	8	7	9	6	8
8	6	8	9	2	7	9	1	2
9	7	2	6	8	1	5	2	8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5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55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신작은 기본, 오케스트라에 인디게임까지 ‘볼거리 풍성’

부산 벡스코서 오늘 개막식

‘지스타 2024’ 올해 20주년
참여부스 3359개 ‘역대최대’

총 3개 트랙 ‘G-CON’ 공개
올해 관람객 약 20만명 예상
입장객 시간 구분, 밀집도 완화

국내 최대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4’가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지난해보다 더 큰 규모와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했다. 올해 참여 부스는 3359개로 BTC관은 2435부스 BTB관은 924부스, 44개국 1375개 부스로 마련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3250개)부스 규모를 넘어섰다.

◆올해는 다채롭다

13일 지스타 조직위원회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지스타 2024’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 지스타 2024는 ‘당신의 지평선을 넓혀라(Expand Your Horizon)’라는 슬로건으로 대형 게임사들의 PC·콘솔 신작뿐 아니라 인디게임도 선보인다. 또한 오케스트라, 시연, 인디게임 등 다양한 볼거리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업계는 지난해보다 관람객들의 볼거리, 체험거리가 더욱 풍성해 많은 관람객이 현장을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지스타2024의 메인스폰서인 넥슨을 필두로 넷마블, 크래프톤, 펠어비



지난해 열린 지스타2023 현장.

/최빛나 기자

스, 웹젠, 하이브IM 등이 참여한다.

실제 BTC(기업-소비자 거래) 1전시장의 경우 조기 신청 오픈 불과 20분 만에 대형 부스 전 구역이 마감될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지스타 조직위에 따르면 지스타 대표 킬러 콘텐츠로 꼽히는 ‘G-CON(지스타 콘퍼런스)’는 14~15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공개된다. 총 3개 트랙, 42개 세션으로 진행되는 G-CON 2024의 키노트 연설자로는 게임 산업 레전드 코에이 테크모 총괄 PD 시부사와 코우, 파이널 판타지 VII 리메이크 프로젝트 프로듀서로 활동 중인 키타세 요시노리 등이 참여한다.

뿐만 아니라 지스타 게임 코스프레 어워즈, 지스타컵2024 등 일반 관람객을 위한 부대행사도 마련했다.

이번 지스타 2024에는 세계 최대 게임 유통 플랫폼인 ‘스팀’이 국내 전시 행사에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람객들의 기대도 높다.

‘인디 쇼케이스 2.0 : 갤러시’ 역시 올해 지스타에서 대폭 확대됐다. 스팀과 함께 다양한 인디 게임을 선보일 예정이다. 여기에는 씨클프롬닷과 마일스톤 게임즈, 섀넌게임즈 등 부산 게임기업 3곳도 참여해 시선을 모은다.

신작, 시연 중심으로 주를 이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크로스플랫폼 기반의 게임이 다양하게 출시된다는 점도 눈에 띈다. 뿐만 아니라 게임스킬, 도쿄 게임쇼 등에서 이목을 끌었던 펠어비스의 붉은 사막 등 신작 게임이 대거 출시되는 점도 기대감을 끌고 있다.

또 메인스폰서인 넥슨이 30주년을 맞

이해 기념존도 마련했다. 오는 16일 30주년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관람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 ‘테일즈위버’ 등 넥슨 대표 게임의 배경음악을 연주해 넥슨의 역사를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스타 최초 오케스트라 공연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올해는 지스타 20주년, 메인스폰서인 넥슨 30주년이라는 타이틀만으로도 지난해 지스타보다 규모가 클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굵직한 신작 게임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들이 마련돼 있어 관람객들의 기대감도 높은 상태. 업계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예년에 비해 부산공동관도 더욱 풍성해진 것도 눈에 띈다. 부산시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스타 2024 기간 내내 50개 부스 규모의 부산공동관이 운영된다. 부산 우수 게임 기업 23곳이 부산공동관으로 참가해 29개의 개성 넘치는 콘텐츠를 선보인다.

올해는 BTC 공동관이 처음으로 운영된다는 점도 기대감을 높인다. 일반 관람객들도 부산 게임 기업의 혁신적인 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은 ‘당연’

시와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행사 기간 많은 관람객이 현장을 찾을 것으로 보고 안전 관리와 보안을 강화했다. 올해

지스타 관람객은 약 2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람객 밀집도 완화를 위해 오는 14일 오전 10시·낮 12시 입장으로 구분했다. 현장 예매 없이 100% 사전 온라인 예매 방식을 도입했다.

관람객이 벡스코 앞 6차선 도로를 건너서 전시장까지 이동해야 함에 따라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행사 기간 센텀역 교차로에서 벡스코 정문 입구까지 6차선 도로를 양방향 통제한다.

도로 통제에 따라 시내버스 3개 노선(307번, 1006번, 2029번)과 시티투어(레드)노선이 벡스코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우회 운행한다.

공식 앱 스마트티켓 현장 확인처도 오전(벡스코 야외주차장 부지)과 오후(벡스코 부대시설 부지)로 분리했다.

행사장 내부에는 구역별로 면적에 따른 수용 가능 인원 기준, 밀집 현상 발생 시 대응 기준을 별도로 설정했다. 경호, 운영, 안전요원 등을 비롯해 시, 주관사, 경찰, 소방 등의 지원 인력을 포함해 약 500명이 투입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올해 지스타는 2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며,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모든 역량과 지원을 집중하겠다”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철저한 준비 지원으로 참여 기업과 관람객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 올해의 게임대상 영예

출시 하루만에 매출 140억 달성
140개국서 다운로드 1위 등 기록

렐루게임즈 ‘굿게임 상’ 등 수상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 ‘공로상’

‘2024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넷마블의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가 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넷마블의 이번 수상은 2022년 이후 2년 만이다.

13일 넷마블의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가 부산 벡스코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 ‘2024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대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게임대상은 국내 게임사 중 최고의 게임에 주어지는 영예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주관으로 시상한다.

올해 게임 후보작품에는 ▲‘그라도 에스파다M’(한빛소프트)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넷마블 네오) ▲‘로드나인’(스마일게이트) ▲‘스텔라블레이드’(시프트업) ▲‘언커버 더 스모킹 건’(렐루게임즈) ▲‘창



방준혁 넷마블 의장(왼쪽 다섯번째)이 나 혼자만 레벨업 개발 팀원들과 수상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최빛나 기자

세기전 모바일’(미어캣게임즈) ▲‘쿠키런: 모험의탑’(오븐게임즈) ▲‘트릭컬 리바이브’(에피드게임즈) ▲‘퍼스트 디센던트’(넥슨게임즈) 등 9개의 게임이다.

올해 대상을 수상한 넷마블의 ‘나 혼자만 레벨업’은 지난 5월 인기 웹툰 IP 기반으로 출시한 모바일 게임이다. 출시 하루만에 매출 140억원을 기록했고 글로벌 174개국 정식 출시 이후 글로벌

141개국 다운로드 1위, 글로벌 21개국 매출 1위 글로벌 105개국 톱10위를 기록한 바 있다.

아울러 정식 출시 2주만에 다운로드 2000만 회를 돌파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출시 5개월 만에 글로벌 누적 이용자 수 5000만 명을 달성한 바 있다. 특히 넷마블의 올해 2분기 매출 7821억 원 중 20%를 차지하며 실적이 큰 기여를 했다. 향후 PC와 콘솔 플랫폼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굿게임 상에는 렐루게임즈의 ‘언커버 더 스모킹 건’이 차지했다. 렐루게임즈는 스타트업 기업상도 수상했다.

바른게임환경조성 기업상은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가 차지했다. 기술창작상 기획 시나리오&사운드&그래픽&캐릭터에는 시프트업의 스텔라블레이드가 4개 모두 수상하며 업계 이목을 끌었다.

공로상에는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이 받았다. 우수 개발자상은 김형태 시프트업 개발자가 차지했다. 이스포츠 발전상은 조승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직접 수상작을 발표했다.

인디게임상에는 룬플레이스튜디오의 터미너스:좀비 생존자들이 차지했다. 인기게임상에는 시프트업의 스텔라블레이드가 수상했다. 플랫폼 구분 없이 3종의 게임이 수상되는 우수상에는 ‘로드나인’, ‘트릭컬 리바이브’, ‘퍼스트 디센던트’가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시프트업 스텔라블레이드가 수상했다.

/최빛나 기자

인기협-엔씨소프트 게임 스타트업에 BTB관 전시 지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엔씨소프트 후원으로 14일부터 국내 최대 게임쇼인 ‘지스타 2024’ BTB관에 게임 스타트업 부스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인기협은 지스타2024에 참가해 게임 기업들의 개발 게임과 콘텐츠 홍보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기협과 엔씨소프트는 2017년부터 게임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BTB관 전시를 매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9월 신청접수 및 내부심사를 통해 슈퍼조이·오지·올라프게임즈·36리터스 등 4개사를 지원 기업으로 선정했다.

‘스타트업 위드 NC’ 공동관은 게임 및 콘텐츠에 관심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사의 콘텐츠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를 통해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게임 스타트업들이 비즈니스 미팅, 투자 제안 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최빛나 기자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머스크 ‘정부효율부 장관’ 발탁…정책·예산 최고실세
▲ 유럽우주국 수장, 트럼프 복귀에 “우주 개발 필요…美와 경쟁해야” /사진 뉴시스

▲ “너의 몸, 내 선택” “여자는 주방으로”…트럼프 당선후 ‘여혐’ 확산
▲ 메타, EU 규제에 폐북·인스타 ‘광고 제외 구둑료’ 인하



▲ “석유는 신의 선물”…COP29, 화석연료 퇴출 놓고 충돌
▲ 美 “북한군 대부분 러시아 쿠르스크 서 전투 참여” /사진 뉴시스



골드키즈 시대
프리미엄 이유식 등
매출 급상승
니



Life

러닝화 중심
풋웨어 시장
성장세
L2



‘도시재생 1호’ 창신동 재개발... 역사·자연 품은 랜드마크로

서울 대표 낙후지역 ‘신통기획’ 확정 6400가구 규모 주거단지로 대변신 열악한 도로 개선, 교통체계 손질 역사·자연과 조화로운 경관 조성

소형 분제공장이 밀집한 서울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철거 대신 보존을 택했던 ‘도시재생 1호 사업지’ 창신동 일대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약 6400 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변신한다. 역사·자연과 조화로운 경관을 조성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창신동 23-606(옛 창신9구역)과 629(옛 창신10구역) 일대를 신속통합기획 신규 대상지로 결정하고, 지난해 확정된 창신동 23-2·송인동 56-4



창신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조감도. (서울시)

인근을 포함한 총 4곳(약 34만㎡)에 대한 통합개발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원래 창신동 일대는 2007년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뉴타운 지구로 지정돼 아파트 단지 등으로 재개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원순 전 시장이 2013년 뉴

타운 지정을 해제하고 이듬해 서울의 ‘1호 도시재생 선도구역’으로 지정해 보존 중심으로 개발 방식을 전면 수정했다.

시는 “당시 창신동 일대에 8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골목에 벽화를 그리고 전망대를 만들었으나 현재까지도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또한 가파른 경사와 협소한 도로로 인해 소방차 등 비상 차량 진입이 어려워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실정”이라고 사업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창신동 일대에 신통기획을 적용, 대대적인 주거 환경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열악한 도로를 개선하고 불합리

한 교통 체계를 손질한다.

구릉지, 한양도성 등의 지역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유연한 개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한양도성 일대 지형 차이와 경사를 활용한 테라스하우스나 필로티, 연도형 상가 등 창의적 건축 디자인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시는 양각 규정과 같은 제약 사항을 극복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시는 한양도성, 낙산 등 역사 유적, 자연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영역별 높이 계획을 유연하게 수립해 다채로운 경관을 조성하기로 했다. 전체 높이는 낙산(125m) 이하로 설정하고 한양도성과 낙산능선변에는 중저층, 종로와 창신길변엔 고층을 배치하는 방식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研 “지역특색 살린 매력도시 만들어야”

지역별 문화적 특성 4가지로 유형화 신 유형 통해 도시 방향성 생각해야

서울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는 대신 지역 특색을 강화해 사람들이 몰리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3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펴낸 정책리포트 제408호 ‘서울 도시공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 서울의 일상 공간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인구 감소는 도시공간의 활력을 저해하고 쇠퇴를 불러올 수 있

는 위험 요소”라며 “서울의 경우 상주인구가 줄면서 지역의 활력 감소가 문제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는 문화적 소비 여건을 갖춘 곳이 더 강력한 인구유인 효과를 가져온다”며 “상주인구를 늘리기보다는 유동인구를 증대시켜 지역의 활력을 키우는 매력적인 도시공간 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문화 소비가 현대 도시의 특징과 경쟁력을 만들어낸다고 보고, 문화 소비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도시 싼 분석 방법론을 적용, 서울의 공간별 문화적 특징을 조사했다.

도시 싼은 지역 내 특정 공간에서 발

견되는 강렬한 문화적 특성을 의미한다. 도시의 문화 소비 행태는 특정 장소에서 이뤄지는 것이며, 도시 싼은 이러한 장소를 계량화하기 위한 도구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연구진은 싼 유형의 조합을 통해 서울의 문화적 특징을 ▲보헤미안 ▲상업 및 기업 지역 ▲고급 근린 지역 ▲합리성 지역 총 4개로 유형화했다.

연구진은 “도시 싼을 분석하면 어떠한 싼이 어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지 확인 가능하다”며 “이러한 비교를 통해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는 매력적인 도시 공간의 방향성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현정 기자

동덕여대 시위에 학교측 “폭력 책임 물을 것”

재학생, ‘공학반대’ 수업거부 시위 학교 “정식안건 아니... 폭력사태 비통”

동덕여자대학교에서 남녀공학 전환 문제를 둘러싸고 학생들이 시위가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 측이 “남녀공학 전환 여부는 학교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사안일 뿐, 정식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과잠시위’ ‘이사장 흉상 훼손’ 등 학생 반발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학교 측은 “폭력사태에 엄중한 책임을 물겠다”고 경고했다.

13일 동덕여대에 따르면, 전날 김명애 총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학교가 ‘밀실에서 공학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이라며 “대학은 이

사안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시위는 지난 11일 학생들이 학교 점거 농성과 수업 거부를 벌이며 시작됐다. 이에 앞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동덕여대 본부가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가 올라왔고, 총학생회는 학교 측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며 시위를 시작했다.

대학 측은 “공학 전환은 학교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도 없으며, 구성원들의 의견수렴과 소통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며 “지성인으로서 대화와 토론의 장이 마련돼야 하는 대학에서 이와 같은 폭력사태가 발생 중인 것을 매우 비통하다”고 했다. /이현진 기자 ihj@

‘K-뷰티엑스포’ 성료... 수출상담액 7배↑

지난 7일부터 사흘간 킨텍스에서 열려 베트남시장서 K-뷰티 제품 인기 증가

킨텍스는 13일 베트남 호찌민 SECC 전시장에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열린 ‘K-뷰티엑스포 베트남 & 사이공뷰티쇼 2024’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0년 이후 4년 만에 개최되었으며, 총 120개 기업이 137개 부스로 참여해 베트남 시장에 K-뷰티의 위상을 알렸다. 참가객은 6500여 명으로 전회 대비 약 130% 증가했으며,

초청 바이어도 230개사로 280% 확대되어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수출상담액은 6,846만 달러로 지난 행사 대비 7배 상승했으며, 계약 추진액도 3273만 달러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베트남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산 K-뷰티 제품에 대한 인기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기도와 킨텍스는 행사에 참가한 경기도 기업 60개사에 부스 참가비 지원, 통역 서비스, 운송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서울시 종량제폐기물 190t 감축

서울시는 올해 1~8월 사업장 폐기물 자체 처리 강화,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확대 등을 통해 종량제 폐기물을 하루 190t 감축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시는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벌여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업장 332곳을 추가로 발굴, 그동안 공공 처리했던 폐기물을 자체 처리로 전환하면서 종량제 폐기물을 줄였다. 중구와 송파구 등 6개 자치구는 수거 체계를 구축해 커피박 재활용 환경을 조성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11 | 해질 / 17:22

11월 14일 (木)
음력 : 10월 14일

수도권 날씨
11~18℃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8/17, 동두천 9/17, 가평 6/17, 파주 8/17, 서울 11/18, 양평 8/17, 인천 12/17, 수원 12/18, 용인 12/18, 평택 9/18, 백령도 13/1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문체부, 이기흥 체육회장 3선 자격 승인에 “더이상 긍정성·자정능력 기대 안해”
▲손흥민 합류한 축구대표팀, 쿠웨이트와 5차전 앞두고 훈련 /사진 뉴시스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미술품 10점 중 2점 진품보증서 없다
▲“디지털로 화이팅, 식사로 힐링” 호텔가, 대입 수능 이벤트 풍성



▲고승범·에드가·이기혁·조현우, K리그 10월 이달의 선수상 경쟁
▲프로축구 강원 윤정환 감독, 최초 한 시즌 3회 ‘이달의 감독상’ /사진 뉴시스

버스타비 **잡**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